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오 순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괴테의 Wilhelm Meister 중 Harfenspieler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볼프 가곡의 비교 분석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손 정 아

괴테의 Wilhelm Meister 중 Harfenspieler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볼프 가곡의 분석

오순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 주 학 과
손 정 아

인 준 서

손정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한 방 원 인

심사위원 오 순 영 인

심사위원 강 은 혜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는 고전주의, 낭만주의의 독일문학의 주축을 이루었고, 그의 작품들은 오페라, 가곡, Ballade, 표제음악 등 여러 장르에 사용되었으며 음악가들에게 끊임없는 창조의 원천이 되었다.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인간의 자아에 대한 깨달음과 과거에 대한 동경, 비현실, 자연, 그리움 등의 시를 다루었으며 특히 괴테의 서정시는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풍부한 소재가 되어 작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작곡가의 사상과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 인간 내면의 심리 변화가 음악으로 표현되고 있다.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나오는 하프 타는 노인의 시(Harfenspieler)는 고독하게 살아가는 신비스런 노인 하프너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고뇌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으며 Schubert, Schumann, Wolf를 비롯해서 19세기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낭만주의 독일 작곡가 중에서 슈베르트와 볼프에 의해 작곡된 <Harfenspieler>의 가곡 분석을 통하여 슈베르트와 볼프의 음악적 특징과 작곡기법을 비교하며, 작곡가의 의도에 따른 작품 해설 및 시와 음악에 있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표현 기법을 연구한 것이며 피아노 반주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반주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괴테의 생애와 작품 ····· 3
   1) 괴테의 생애 ····· 3
   2) 괴테의 소설 "Wilhelm Meister"의 내용 ····· 5

2. F. Schubert와 H. Wolf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 8
   1) F. Schubert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 8
   2) H. Wolf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 11

3. F. Schubert와 H. Wolf의 비교 분석 ····· 14
   1)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 16
      a)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2> ····· 17
      b) H. Wolf, <Harfenspieler III> ····· 25
   2)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고독에 몸을 바친 자) ····· 31
      c)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1> ····· 32
      d) H. Wolf, <Harfenspieler I> ····· 40
   3)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문간에 가만히 다가가) ····· 48
      e)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3> ····· 49
      f) H. Wolf, <Harfenspieler II> ····· 55

III. 결 론 ····· 60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하프 타는 노인의 시에 붙인 슈베르트 가곡 ····· 2
<표1-1> 하프 타는 노인의 시에 붙인 슈베르트 가곡 ····· 14
<표2> 하프 타는 노인의 시에 붙인 볼프 가곡 ····· 15
<표3>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2의 형식 ····· 17
<표4> Harfenspieler III의 형식 ····· 25
<표5>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1의 형식 ····· 32
<표6> Harfenspieler I의 형식 ····· 40
<표7>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3의 형식 ····· 49
<표8> Harfenspieler II의 형식 ····· 55

악 보 목 차

<악보1>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2>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1-12 마디 ····· 18
<악보2> " 12-20 마디 ····· 19
<악보3> " 28-30 마디 ····· 20
<악보4> " 30-44 마디 ····· 21
<악보5> " 45-54 마디 ····· 23
<악보6> " 61-66 마디 ····· 24
<악보7> H. Wolf, <Harfenspieler III>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1-4 마디 ····· 25
<악보8> " 5-12 마디 ····· 26
<악보9> " 12-16 마디 ····· 27
<악보10> " 17-25 마디 ····· 29
<악보11> " 26-29 마디 ····· 30
<악보12>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1>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1-4 마디 ····· 33
<악보13> " 5-7 마디 ····· 33
<악보14> " 9-10 마디 ····· 34
<악보15> " 11-14 마디 ····· 34
<악보16> " 15-21 마디 ····· 35
<악보17> " 22-25 마디 ····· 36
<악보18> " 28-31 마디 ····· 36
<악보19> " 30-35 마디 ····· 37
<악보20> " 36-52 마디 ····· 38
<악보21> H. Wolf, <Harfenspieler I>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1-5 마디 ····· 41
<악보22> " 6-12 마디 ····· 42

<악보23> 〃 N6th(Neoapolitan 6th chord) …… 43
<악보24> 〃 18-29 마디 …… 44
<악보25> 〃 30-35 마디 …… 46
<악보26> 〃 35-39 마디 …… 47
<악보27>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3>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1-12 마디 …… 50
<악보28> 〃 17-25 마디 …… 51
<악보29> 〃 26-29 마디 …… 52
<악보30> 〃 30-46 마디 …… 53
<악보31> 〃 47-50 마디 …… 54
<악보32> H. Wolf, <Harfenspieler II>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1-4 마디 …… 55
<악보33> 〃 5-8 마디 …… 56
<악보34> 〃 13-16 마디 …… 57
<악보35> 〃 17-22 마디 …… 58
<악보36> 〃 26-31 마디 …… 59

I. 서 론

독일 예술 가곡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피아노의 발전과 살롱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독일 낭만주의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와 인간 내면의 심리변화나 감정을 표현하려는 낭만주의 음악이 발전한 성악장르로써 시와 음악이 완벽하게 결합된 예술형태를 이루고 있다.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 피아노 반주부로 독일 예술가곡을 발전시켜 리트(Lied)를 창시한 높은 예술성을 지닌 작곡가이다. 볼프(Hugo Wolf, 1860-1903)는 문학적 감각과 어휘의 섬세한 뉘앙스를 살려 시의 내용을 반주부의 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어 시와 음악이 하나가 되게 하여 독일 예술 가곡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괴테의 소설 "Wilhelm Meister"에 나오는 하프 타는 노인의 시 <Harfenspieler>를 슈베르트와 볼프의 두 작곡가들의 작품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괴테의 생애, 그의 작품 세계와 "Wilhelm Meister"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슈베르트와 볼프 두 작곡가의 작곡 기법과, 그 음악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며, 같은 시에 작곡가들이 어떻게 다르게 노래를 음악적으로 발전시켰는지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른 반주가 지니는 연관성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반주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하프 타는 노인의 시는 "Was hör ich draußen vor dem Tor"(저 바깥 성문 앞 다리 위에서 들려 오는 것이),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고독에 몸을 바친 자),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문간에 가만히 다가가)로 구성되어 있다. 괴테는 후일 "Was hör ich draußen vor

dem Tor"을 담시집에 수록하고 이 시에다 "Der Sänger"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본 논문은 "Der Sänger"는 제외하고 괴테의 소설 "Wilhelm Meister"에 나오는 순서대로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을 다루고자 한다.

<표1> 하프 타는 노인의 시에 붙인 슈베르트 가곡[1)]

곡명	가사 첫 소절	작품번호	작곡연도
Der Sänger version a version b	Was hör ich draußen vor dem Tor	D.149 (Op.117)	1815
Harfenspieler(1)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D.325	1815
Harfenspieler I (Gesänge des Harfeners no.1) version a version b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D.478 (Op.12 no.1)	1816
Harfenspieler II (Gesänge des Harfeners no.3) version a version b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D.479 (Op.12 no.3)	1816
Harfenspieler III (Gesänge des Harfeners no.2) version a version b version c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D.480 (Op.12 no.2)	1816

1)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l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6, 1980, p.789, 792, 795

II. 본 론

1. 괴테의 생애와 작품

1) 괴테의 생애

독일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자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정치가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는 독일 문학 사상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괴테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다방면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또한 괴테는 유랑 극단이 공연하는 인형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연극은 괴테의 삶과 문학에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는 1765년부터 1768년까지 라이프치히에 머물면서 법학을 공부하였지만 그의 관심은 문학과 예술 쪽에 더욱 쏠렸다.

1770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 하였으며, 이 곳에서 헤르더(J.G.Herder)를 만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독일의 사상가였던 하만(J.G.Hamann, 1730-1788)의 신비적인 사상세계와 셰익스피어(W.Shakespeare, 1564-1616)을 접하게 되고, 자유, 감정, 자연 등을 노래한 괴테의 서정시는 독일 문학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질풍노도(Sturm und Drang) 시대[2]를 열게 하였다. 젊은 사상가들은 일체의 속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부르짖으며 모든 기존 질서에 도전하게 되었다[3]. 이런 사상의 배경을 기초로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ben des jungen Werthers, 1774)"을 출간하였다.

그 후 잠시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다가 1775년 괴테는 바이마르 궁정에서 공작의 고문을 하였고, 1777년에는 연극 예술에 정열을 불태우는 주인공을

---

2) 1770-1785년 사이에 독일에서 일어난 문학 운동. 당시 젊은 세대의 격렬한 감정을 표출
3) 노태한, **독일문학사**, 서울: 한국문화사, 2003, p.222

그린 미완성 소설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Wilhelm Meisters Theatralische Sendung"에 대한 개작에 들어간다[4].

괴테의 생애와 문학에서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1786-1788년의 이탈리아 여행은 시인에게 예술과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이탈리아 여행은 질풍노도 시대에서 고전주의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타우리스 섬의 이파게니에(Iphigenie auf Tauris)"와 "토르크바토 타소(Torquato Tasso)"이 두 희곡은 괴테의 고전주의를 꽃피우게 한 작품들이다.

1794년부터 1805년까지 괴테는 쉴러(F. Schiller)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시기는 고전주의 문학이 성공을 거둔 시문학적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다. 서로 성향과 견해가 다른 이 두 사람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되었으며 쉴러는 드라마 "발렌슈타인"을 쓰기 시작하였다.

미완성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이 1796년 그의 대표적인 교양소설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로 완결되었다. 이듬해인 1797년에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 und Dorothea)"를 완성하였으며 이 때 독일 고전주의가 확립되었다.

1800년 괴테는 "파우스트(Faust) 2부"를 쓰기 시작하였다.

1805년 쉴러의 죽음과 더불어 괴테는 만년기를 맞이하였으며 만년의 괴테의 문학활동은 "세계 문학"의 제창과 그 실천이었다. 그 무렵에 이미 유럽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830년에는 40권의 괴테 작품집이 발간되었고, 긴 세월을 두고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파우스트 2부"를 1831년에 완결하였으며 이듬해인 1832년 3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괴테는 긴 생애동안 문학 창작활동의 예술적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간 위인이었으며 독일 문학 사상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다.

---

4) 이상기, **괴테 불멸의 사랑**, 서울: 푸른 숲, 1999, p.9

2) 괴테의 소설 "Wilhelm Meister"의 내용

"Wilhelm Meister"는 2부작 장편소설로 제 1부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6)", 제 2부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Wilhelm Meisters Wanderjahre, 1829)"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은 괴테가 1777년 집필하기 시작하여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쉴러와의 교류가 있던 시기에 쉴러의 격려로 179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빌헬름은 외부 세계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인격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데, 이것은 작가 괴테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5].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그의 대표적 교양 소설[6]로서 이후 다른 작가들의 교양 소설의 모태가 되었다. 작품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각기 다른 복잡한 인생들이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의 생활감정이 완전한 객관성을 띠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사건의 극적인 진행보다는 주인공 빌헬름이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들의 성격 묘사와 그들과 교류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격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빌헬름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 받기로 하였으나, 어린 시절 인형극을 본 뒤 연극에 소명을 느낀다. 유랑극단에서 마리아네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거절당하고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단념한 채 여행길에 오른다.

어느 도시에서 하프를 가지고 노래하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빌헬름은 노인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생활하게 된다.

---

5) 노태한, **독일문학사**, 서울: 한국문화사, 2003, p.222
6) 교양소설 :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갖가지 체험을 쌓으면서 성장, 발전하여 인간으로서의 자기 형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빌헬름은 서커스단 구경을 하다가 곡예단 단장에게 매를 맞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소녀 미뇽을 구해주고 그녀를 보호하게 된다. 미뇽은 자신을 구해준 빌헬름을 헌신적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되고 빌헬름은 미뇽을 친자식처럼 돌봐준다.

빌헬름은 어느 백작성의 연극 공연에 초대되어 연극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는 직접 무대 감독 일을 맡기도 하였고 직접 극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백작부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를 사랑하게 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극단과 함께 떠난다.

백작의 성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던 중 강도를 만나 극단은 약탈을 당하고 빌헬름은 부상을 당한다. 그러나 빌헬름은 한 귀족 부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빌헬름은 그 귀족 부인이 나탈리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자 미뇽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 빌헬름을 잃게 되었다는 충격에 절망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 미뇽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탈리아 어느 백작은 미뇽이 백작의 질녀이며 하프 타는 노인이 바로 자기 동생인 아우구스티네(Augustinne)이며 미뇽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 백작의 부모는 노년에 이르러 딸 스페라타를 낳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걱정하여 스페라타를 양녀로 보낸다. 세월이 지나고 아우구스티네는 다른 집에서 성장한 여동생 스페라타와 남매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게 되며 그는 사제직까지 버리게 된다. 이 근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딸이 바로 미뇽이다.

이 소설 속의 미뇽은 매우 신비로운 이국적 외모로, 작은 키에 몸도 아주 외소하며 창백한 얼굴과 나이를 알 수 없는 소녀로 묘사된다. 따뜻한 고향 이탈리아에서 납치되어서 서커스단에 끌려 다니며 학대를 받으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유난히 싫어했으며 나이에 비해 유난히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천진난만하면서도 내성적이며 폐쇄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서커스단에서 벗어나게 해준 빌헬름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며 짝사랑하게 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다. 또한 그녀는 유랑극단에서 아버지인 하프 타는 노인을 만나게 되지만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한다.

미뇽은 교육받기를 원하였으나 이해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미뇽은 사내아이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중성의 이미지로 그녀의 근친상간의 출생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반대 성향을 표출시킨다[7].

미뇽의 출생 비밀은 소설 끝에 가서 밝혀지게 되며 미뇽의 신비한 달걀 춤은 미뇽의 심리적 충격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의 분출하지 못하는 짓눌림 속에서 자신을 구출하려는 욕망을 상징한다[8].

미뇽의 아버지인 하프 타는 노인은 유랑극단에 합류하여 빌헬름과 우정을 쌓게 되며, 또 거기서 미뇽을 만나게 된다. 미뇽이 자기 딸임을 알게 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괴로워하며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늘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정신적인 고뇌와 심리적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으나,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하늘에 원망하며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

---

7) 안진태, **독일담시론**, 서울: 열린책들, 2003, p330
8) 안진태, **괴테 문학의 여성**, 서울: 열린책들, 1995, p.269

2. F. Schubert와 H. Wolf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1) F. Schubert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슈베르트는 1797년 비엔나에서 태어났으며 1808년 비엔나 제일의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왕실 음악 감독이었던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다.

슈베르트가 정식으로 작곡을 시작한 1812-1814년에는 괴테의 시를 열렬히 찬양하고 그 시에서 영감을 얻어 훌륭한 곡을 붙인 궁정 작곡가인 첼터(Karl Friedrich Zelter, 1758-1832)와 라이하르트(Johann Friedrich Reichart, 1752-1814)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1816년까지 살리에리에게 계속 사사하였으며, 1815년에는 4개의 오페라, 2개의 미사곡, 다수의 합창 음악, 145여 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이들 가곡은 클롭스톡(Fridrich Gottlieb Klopstock, 1724-1803), 괴테(Johan Wollfgang von Goethe, 1749-1832), 마이어호퍼(Mayrhofer), 쉴러(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등의 시가 많으며, 특히 들장미(Heidenröslein), 마왕(Erkönig), 하프타는 노인의 시I 등을 포함한 괴테의 시에 붙인 30여 곡이 있다[9].

1816년 슈베르트는 작곡에 전념하여 100여 곡의 가곡이 더 작곡되었으며, 이들 가곡 중에는 방랑자(Der Wanderer), 자장가(Wiegenlied) 등이 있다.

1817년 슈베르트는 왕실 오페라단의 바리톤 가수 포글(Johann Vogl, 1768-1840)과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그는 슈베르트 작품을 가장 잘 해석하여 연주하였고 슈베르트도 그를 위해 많은 가곡을 작곡하여 주기도 하였다. 슈베르트는 친한 친구들과 그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슈베르티아데[10]를 개최하였으며 그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작곡을 했고, 그 후

---

9)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p.436

10) 이 모임에는 마이어호퍼, 슈빈트, 포글 등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밤마다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시를 읊었으며 문학을 논하였다.

에는 친구들과 보내거나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면서 지냈다[11].

1819년에는 22곡, 1820년에는 23곡의 가곡을 각각 작곡하였으며 1818년 2월부터 1822년 11월에 걸쳐 다단조 현악 4중주 D.703의 제 1악장을 작곡하였으나 병으로 인해 끝마치지 못했으며, 이때부터 슈베르트는 매독으로 몹시 고통받기 시작하였다.

1823년에는 "그대는 나의 안식(Du bist die Ruh)"을 포함하여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의 시에 붙인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아간의 아가씨(Die Schöne Müllerin)"가 작곡되었다. 1826년 슈베르트는 24곡의 예술가곡을 작곡하였으며 그 중 3곡의 세익스피어의 노래와 4곡의 "빌헬름 마이스터에서 유래한 노래"(Gesänge aus Willhelm Meister)가 있다.

1827년에는 "세레나데"(Grillparzers Ständchen) D.920, 21곡의 예술가곡과 연가곡집 "겨울나그네"(Winterreise)가 작곡되었다.

1828년 슈베르트는 건강이 좋지 못하였으나 계속 작곡을 하였으며 자신의 가곡 연주회에 참석하였는데 이것이 최후의 모임이 되었다.

"백조의 노래"(Schwanengesang)는 연가곡집이 아닌 가곡 모음집으로 1829년에 출판되었다.

슈베르트는 1828년 10월 소프라노 밀더 하웁트만(Anna Milder-Hauptmann, 1785-1838)을 위해서 피아노, 클라리넷을 위한 "바위 위의 목동"(Der Hirt auf dem Feleson)을 작곡하였으며 이 곡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는 창작욕에 불타 있었으나 그 해 11월 중순 31세의 짧은 생애를 마친다.

슈베르트는 시와 음악이 하나로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높은 예술성을 지닌 독일 예술가곡을 발전시켰다.

---

11) Lorraine Gorell,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8, p.161

그는 다양한 서정시와 샘솟는 선율, 독창적인 화성을 창출하는 피아노 반주를 융합시켜서 600여 개의 예술가곡을 탄생시켰으며, Lied의 창시자 가곡의 왕이라 불리어진다.

슈베르트는 다양한 가곡의 형식을 사용하여 가사의 내용에 따른 음악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같은 음악이 시의 각 절에 그대로 반복되는 유절 가곡, 같은 선율과 반주가 반복되지만 각 연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변형된 유절식 가곡, 시의 느낌이나 분위기에 따라 각 절마다 다른 음악을 붙인 통절식 가곡이 있다.

슈베르트 가곡의 피아노는 풍부하고 따뜻한 음색을 가진 악기였으며 노래의 종속적인 반주의 기능에서 벗어나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는 반주부가 노래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선율과 화성적인 색채에 대한 풍부함을 엿볼 수 있으며 곡의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감7화음, 증6화음 같은 불협화음을 사용하였으며, 조바꿈을 통하여 갑작스런 표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12] 온음계를 사용하면서 반음계적 색채를 교묘하게 사용한 것은 슈베르트의 또 다른 특징이며 그는 주로 3도 혹은 나폴리 6도의 화성을 통한 이명동음, 전조의 사용으로 심리 상태의 변화나 상황을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또한 유니즌 혹은 옥타브를 사용하여 성악 선율의 멜로디를 반주부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 반복하기도 하였다. 다른 장르에서 볼수 없는 개성을 가진 그의 작품들은 독일 가곡사 중에서도 최고의 존재감을 느끼며,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큰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12) 강만희, **간추린 19세기 낭만음악사**, 대전: 예광, 2005, p.59

2) H. Wolf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볼프(Hugo Wolf, 1860-1903)는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술가곡을 한층 더 발전시킨 19세기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버지에게 바이올린과 피아노 레슨을 받았으며, 여덟 살에 처음으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1875년 그는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빈 음악원에서 하모니와 피아노를 배우며 가곡 작곡을 시작하였다. 그는 바그너의 음악 이념과 이론에 젊은 열정을 쏟았으며, 1877년 그가 작곡한 대부분의 가곡은 슈만의 가곡에 영향을 받았고 1878년에는 매독으로 고생하면서 심각한 가사를 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1881년 잘쯔부르크 시립가극장의 부지휘자가 되었으나 일년 내 곧 사임해 버렸다. 1883년 <빈 살롱블라테스, Wiener Salonblatt>의 음악 비평가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는 존경하는 음악가 베토벤, 모차르트, 글룩, 슈베르트, 리스트, 베를리오즈, 바그너의 음악적 해석은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브람스의 음악적 해석에 대해서는 격렬한 비난을 쏟았다. 1887년 "이태리 풍의 세레나데"의 실내 음악을 작곡한 후 최초로 그의 가곡 12곡이 처음으로 출판되었으며, 1888년에는 뫼리케의 시를 작곡함으로써 하루에도 2-3곡씩 주옥같은 가곡들이 작곡되어 그의 천재성을 나타냈다. 1888년부터 1891년까지 볼프의 곡들이 집중적이고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100여곡이 훨씬 넘는 가곡이 집중적으로 작곡되었다. 1888년에는 한사람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집으로 53곡으로 된 "뫼리케 가곡집", 20곡으로 된 "아이헨도르프 가곡집"이 있으며 자신의 가곡집을 출판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가곡으로 독창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1889년에는 스페인 시의 독일어 번역에 의한 44곡의 "스페인 가곡집"과 괴테의 시에 의한 51곡으로 된 "괴테 가곡집" 등 볼프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이하여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작곡되었으며 작곡가들 사이에서 명성과 지

위를 얻게 되었다. 이탈리아어의 번역시에 의한 46곡의 "이탈리아 가곡집"은 1891년부터 1896년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마지막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3편의 시가 1897년에 작곡되었다. 볼프는 병고에 시달렸으며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1903년 2월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볼프는 시와 음악의 통합에 있어서 바그너의 반음계적 화성 및 음악적 특성의 영향을 받았다. 바그너가 문학과 음악을 합쳐 거대한 규모의 음악극을 만들었다면 볼프는 시와 음악을 가곡이라는 작은 규모의 예술 형태로 표현하여 자신만의 독창성을 지닌 가곡을 만들어 냈다.

시인의 선택에 있어서도 볼프는 괴테, 뫼리케, 하이네, 아이헨도르프 등의 시를 선택했으며, 일정한 시기에 한 시인의 작품에 몰두하여 한꺼번에 많은 곡을 작곡하였으며 자신의 곡집의 표제에는 작곡가의 이름 위에 시인의 이름을 기입하는 등 가사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었다[13].

볼프는 음악보다 시를 더 중요시 여겼으며 그가 시를 고르는 기준은 그 자신의 관점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곡을 붙였다고 생각되는 시에는 의식적으로 곡을 붙이지 않았으며, 작곡가들에 의해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다는 시들을 골라서 사용하였으며 그는 단지 시를 음악에 셋팅한 것이 아니라 시를 음악으로 번역한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음악의 형식구조, 가사의 의미표현과 해석, 리듬 유형 등 다른 작곡가와 다른 독특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볼프는 시의 내용을 음악이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성악 파트보다 피아노 반주를 중요시 여겨 반주가 계속해서 연주하며 간주를 통해서 성악구를 연결시켜 주었고 성악은 자신의 음악에서 하나의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로 간주 하였다.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에서는 원본소설의 내용을 무시한 채 괴테의 시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곡하기를 고집하였다[14].

볼프는 성악 성부에 낭창법(Declamation)[15]을 도입하였고 이는 시의 형식적

---

13) Grout, Donald J., **서양음악사(하)**,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p.906
14) 문경수, **성악문헌(독일가곡 편)**, 서울: 솔렘 기획, 1998, p.64
15) 성악곡에 있어 단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가사와 선율이 저마다의 리듬과 독자적인

인 측면이 음악에 적용된 기법으로 시의 발음, 억양, 운율에 음악의 악센트나 프레이즈를 일치시켜 노래하기에 자연스러움을 더해 주었다.

또한 볼프는 민요나 유절형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통절 형식이나 변형된 유절형식을 사용하였다[16].

볼프는 정확하지 않은 조성의 표현 효과를 위해 반음계적 화성과와 불협화음을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이명동음, 예상치 못하는 전조와 진행조성(Progressive tonality)을 통한 미묘한 효과를 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시의 내용을 풍부하게 표현해 주었다.

볼프는 19세기 말 예술가곡을 다시 한번 꽃피웠으며, 그는 250여개의 가곡들을 작곡하였으며 독일 예술가곡의 완성미를 보여주었다.

액센트를 가지고 시의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16)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p.529

3. F. Schubert와 H. Wolf의 <Harfensipeler> 비교 분석

슈베르트는 하프타는 노인의 노래를 소설에 나오는 시의 순서대로 작곡하지 않고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의 순서로 1816년에 작곡하였다.

<Harfenspieler I>인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는 2번 작곡되었는데 version b가 1822년 출판 때 Op.12 no.1로, <Harfenspieler II>인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은 2번 작곡되었는데 version b가 1822년 출판 당시 Op.12 no.3으로, <Harfenspieler III>인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는 3번 작곡 되었는데 version c가 1822년 출판 당시 Op.12.no.2로 분류되었다. 이 곡들이 오늘날 연주되는 곡이다. 슈베르트는 같은 시에 두 세 번씩 작곡하였다.

<표1-1>[17] 하프 타는 노인의 시에 붙인 슈베르트 가곡

곡명	가사 첫 소절	작품번호	작곡연도
Harfenspieler(1)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D.325	1815
Harfenspieler I (Gesänge des Harfeners no.1) version a version b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D.478 (Op.12 no.1)	1816
Harfenspieler II (Gesänge des Harfeners no.3) version a version b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D.479 (Op.12 no.3)	1816
Harfenspieler III (Gesänge des Harfeners no.2) version a version b version c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D.480 (Op.12 no.2)	1816

17)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l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6, 1980, p.789,

볼프는 하프타는 노인의 노래를 소설에 나오는 시의 순서대로 작곡하지 않았고, 괴테의 시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곡하였다.

Harfenspieler I인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는 1888년 10월 27일에 작곡되었고, Harfenspieler II인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는 1888년 10월 29일에 작곡되었으며 Harfenspieler III인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는 1888년 10월 30일에 작곡되었다.

<표2> 하프 타는 노인의 시에 붙인 볼프 가곡[18]

곡명	가사 첫 소절	작곡연도
Harfenspieler I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27 Oct 1888
Harfenspieler II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29 Oct 1888
Harfenspieler III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30 Oct 1888

본 논문에서는 괴테의 소설 "Wilhelm Meister"의 하프타는 노인의 시 <Harfenspieler>에 나오는 순서대로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을 다루고자 한다.

792, 795

18)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l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0, 1980, p.496

1)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 보지 못하고,
Wer nie die kummervollen Nächte	근심에 찬 여러 밤을
Auf seinem Bette weinend sass,	울면서 지새워 보지 못한 사람은
Der kennt euch nicht, ihr himmlischen Mächte.	그대들을 알지 못하리, 천상의 힘들이여!
Ihr führt ins Leben uns hinein,	우리 인간들을 삶으로 인도하는 그대들,
Ihr lasst den Armen schuldig werden,	이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Dann überlasst ihr ihn der Pein:	게다가 또 괴로움에 시달리게 하는구나!
Denn alle Schuld rächt sich auf Erden.	그래, 모든 죄는 이 지상에서 그 업보를 치러야지[19]!

19) Goethe, Johann W. *Wilhelm Meisters Lehrjahre,* 안삼환 역, 서울: 민음사, 1999, p.206

a)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2>

Langsam (느리게)

이 곡은 슈베르트에 의해 1816년에 세 번 작곡되었고 1822년에 세 번째 version c가 Op.12 no.2로 출판되었다.

이 시는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 2권 13장에 나오는 시이다. 주인공 빌헬름이 불편한 심기를 노인의 하프 소리로 달래고 싶어서 그 노인의 다락방으로 찾아가는데 그 방 안에서 노인이 흐느끼며 고통스런 노래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밖에서 빌헬름이 듣게 된다. 운명의 가혹함과 노인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슬픔, 비운에 대한 통곡과 고뇌가 배어 있으며 3편의 시 중에서 가장 비장감을 자아낸다.

이 곡은 신이 인간을 세상으로 보내어 죄를 짓게 하여 고뇌를 알게 한다는 것에 대한 운명의 가혹함, 슬픔을 나타낸다.

조성은 a단조로 시작하여 잦은 전조가 나타나며 시의 구조는 2연 8행을 이루고 있다. 이 곡은 모두 66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AA´-BB´의 형식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통절형식을 이루고 있다.

이 곡의 형식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3>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2의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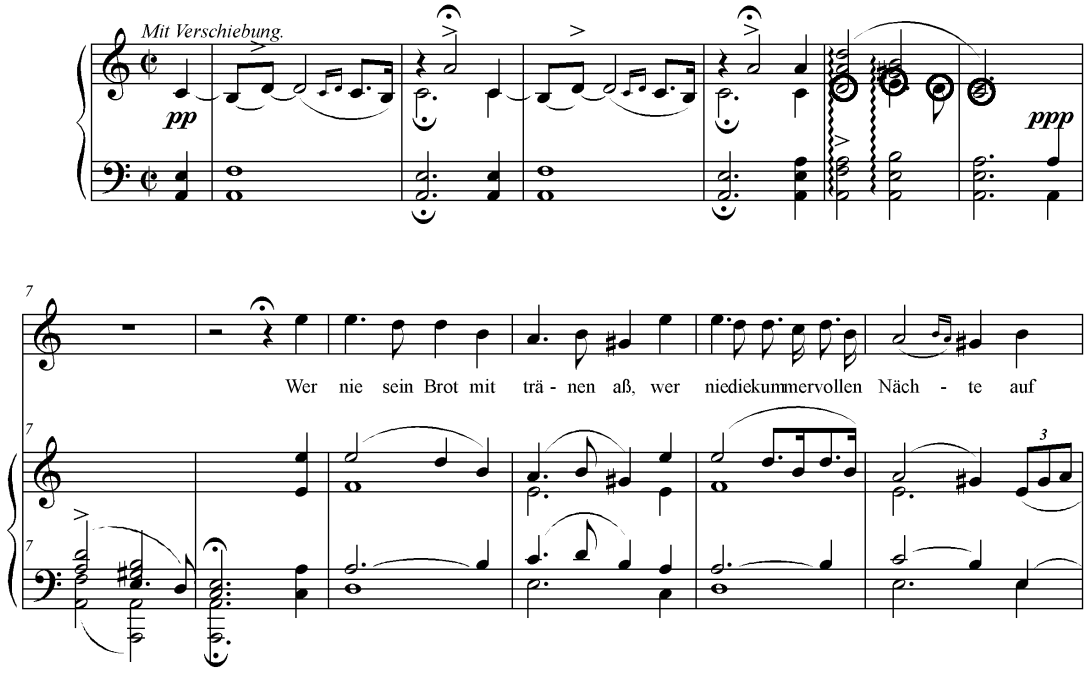
형식	A	A′	B	B′
마디	1-17	18-30	31-44	45-66
조성	am	A	B♭	b♭m-am-A
가사	1연	1연	2연	2연

시의 1연과 2연을 각각 완전히 한 번씩 반복하고 있고, B에서는 2연의 가사로 되어 있고, B′부분에서는 2연 모두 반복한 후, 또 다시 2, 3, 4행을 반복한다. A부분은 a단조이고, A′부분은 A장조로 시작하며, B부분은 B♭장조로 시작하고 B′부분은 b♭단조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잦은 전조의 사용은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을 알 수 있다.

전주는 *pp*로 시작하고 있으며 1-2 마디를 반복함으로써 고뇌에 찬 자신의 슬픔을 *ppp*로 표현하고 있다. 5마디에 하프를 뜯는 듯한 아르페지오 음형이 나오며 내성부를 강조함으로써 하프너의 슬픈 마음과 내면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8-12마디까지 성악 선율의 강세가 음악적 강세와 일치하고 있으며, unison으로 진행하는데 낭송조의 레치타티브가 나타나고 있다.<악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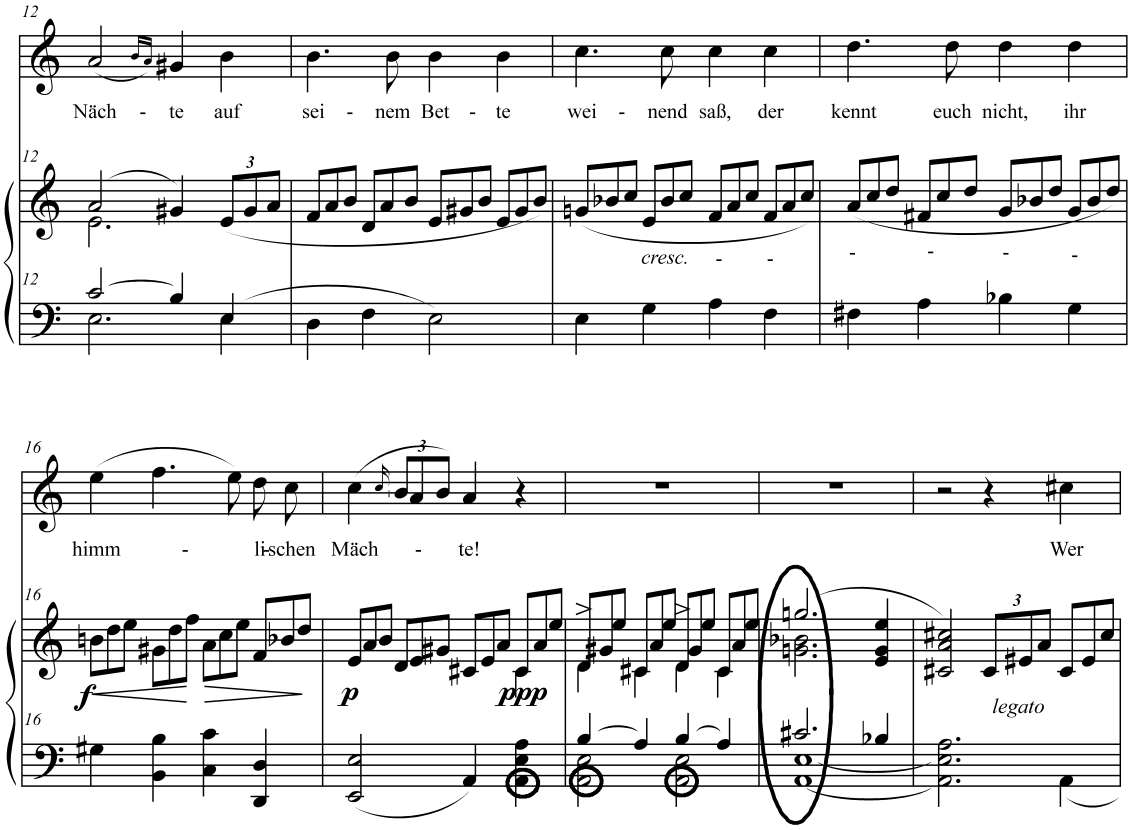
<악보1> 1-12 마디



처음에는 12마디부터 반주부는 오른손의 펼친화음이 계속 진행되고 하프너의 하프뜯는 소리를 셋잇단음표로 나타내고 있으며, 노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6마디 'himmlischen'(하늘의)까지 *f*로 진행시켰다가 급격하게 *p*로 표현함으로써 'himmlischen Mächte'(하늘의 힘)을 더욱 강조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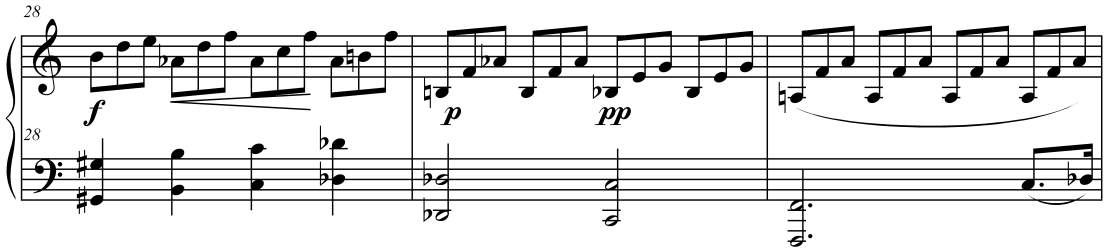
간주 부분의 반주부 베이스라인의 지속음과 악센트가 긴장감을 유지하여 19-20마디에 나오는 화음을 무거운 느낌으로 단호하게 표현해 준다.<악보2>

<악보2> 12-20 마디



A′ 부분에서는 A장조로 전조되었으며 28마디에 'himmlischen Mächte'(하늘의 힘)는 첫번째 표현보다는 좀 더 지속적인 F음과 꾸밈음을 확장함으로써 하늘에 대한 두려움과 하프너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더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악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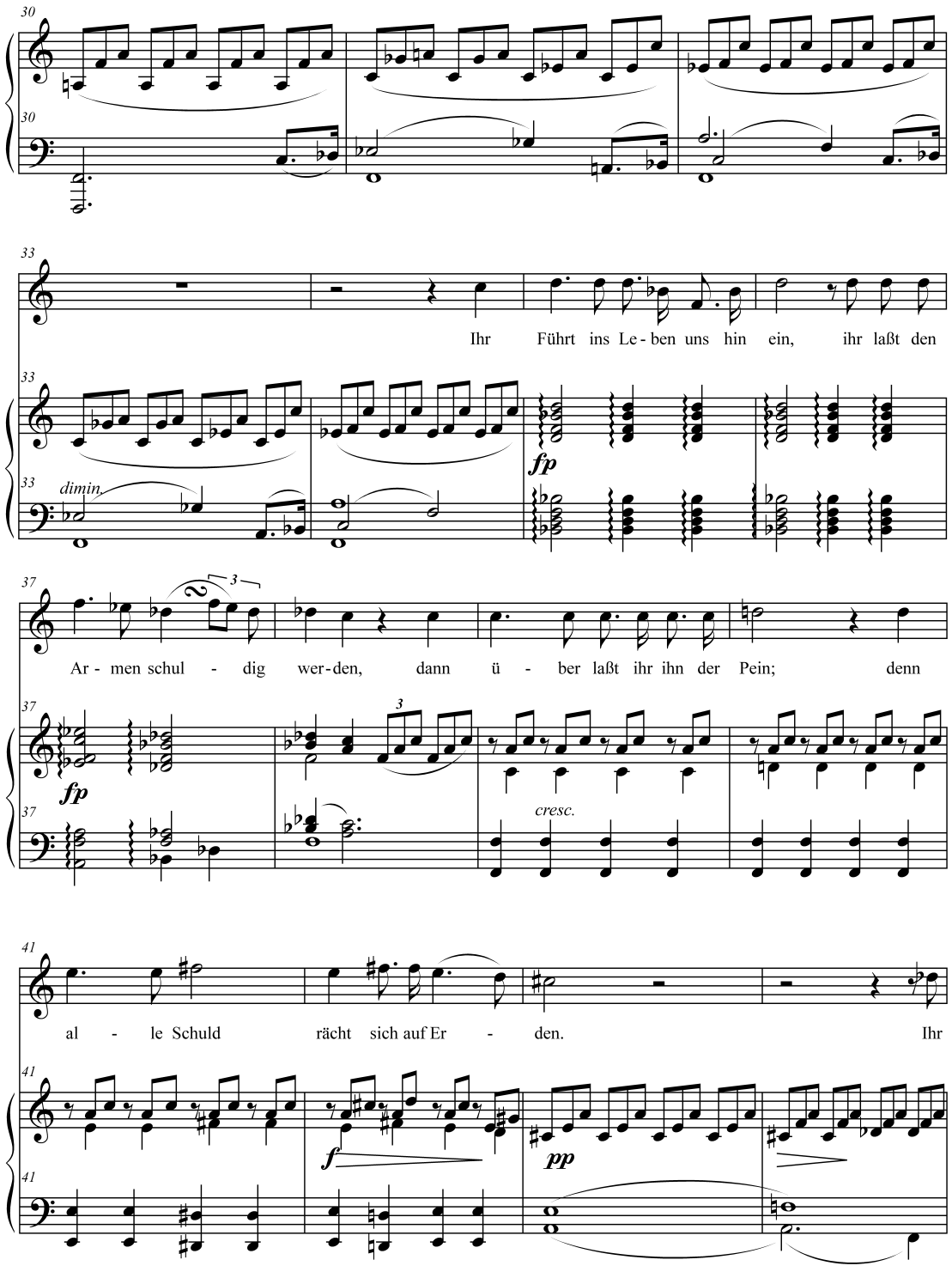
<악보3> 28-30 마디



B 부분은 B♭장조로 전조되었고 간주 부분은 셋잇단음표 리듬 패턴을 유지하면서 베이스 라인이 동형진행하고 있다. F의 지속음은 긴장감을 더해주어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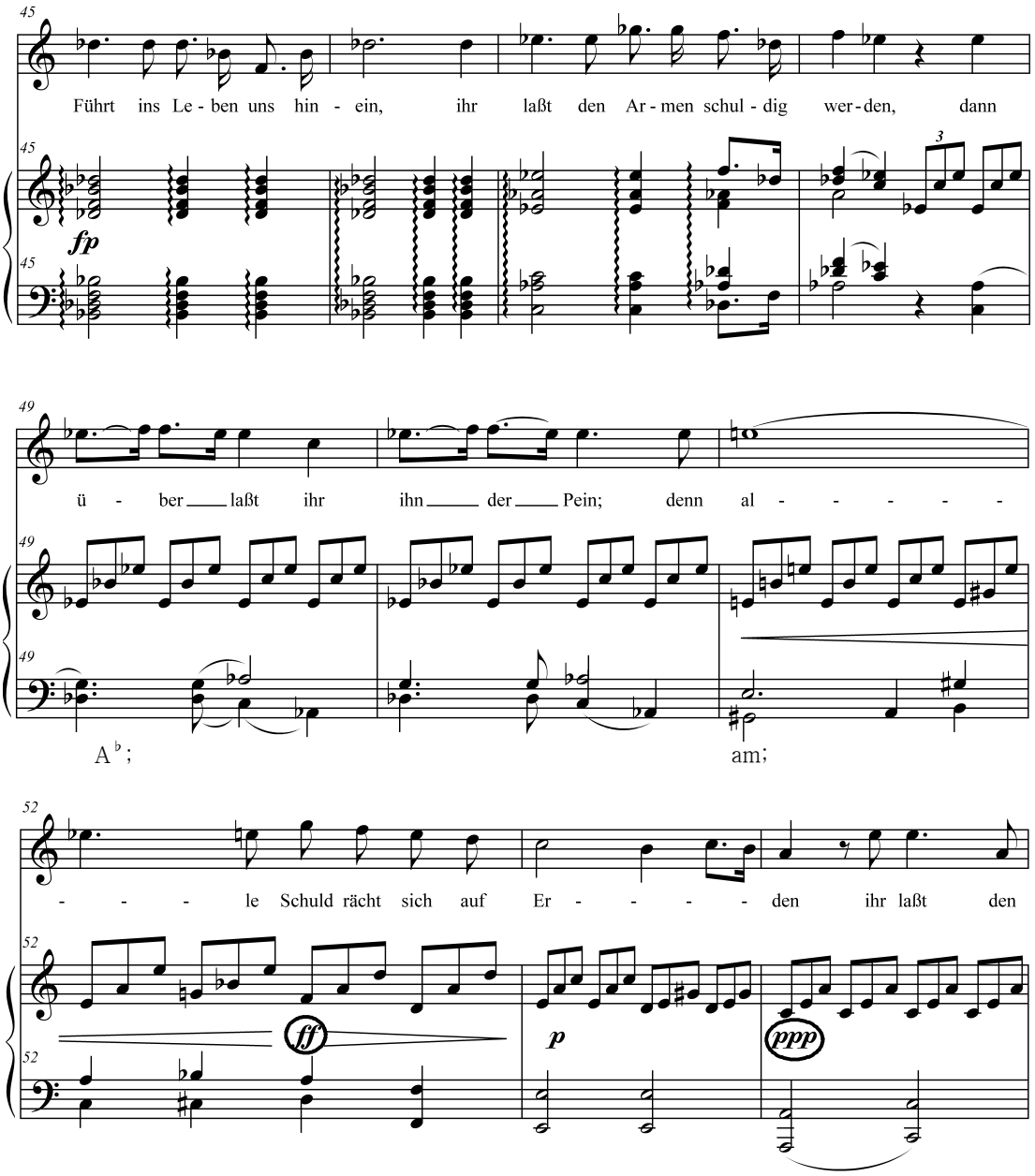
34마디 Ihr가 나타내는 'himmlischen Mächte'(하늘의 힘) 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주부는 B♭장조의 I도 화음을 사용하여 하프를 뜯는 듯한 아르페지오로 가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38-42마디까지는 셋잇단음표의 반주형태도 나오는데 이것은 작곡가의 흐느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 42마디 *f*까지 지속적으로 커지다가 43마디에서 *pp*로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감정을 정리하는 듯 보이나, E♯과 이명동음인 F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조되어 B′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악보4>

<악보4> 30-44 마디


30
30
33
Ihr Führt ins Le - ben uns hin ein, ihr laßt den
33
fp
33
dimin.
37
Ar - men schul - dig wer-den, dann ü - ber laßt ihr ihn der Pein; denn
37
fp
37
3
cresc.
41
al - le Schuld rächt sich auf Er - den. Ihr
41
f
41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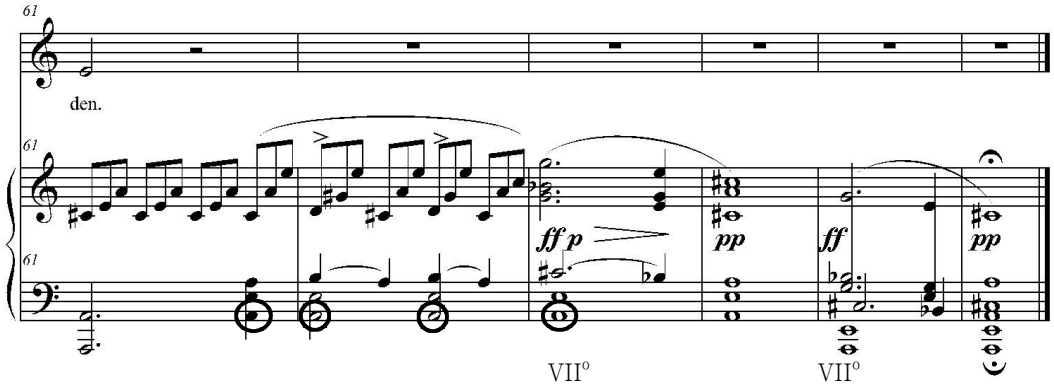
B′부분에서는 가사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잦은 조성의 변화와 반주부의 리듬패턴이 변화함으로써 극적인 가사와 연결시켜 감정이 더욱 격해짐을 볼 수 있다. 51마디의 ′alle′에서 a단조로 전조되면서 성악 선율은 다섯 박자 반의 길이로 끌어주며 크레센도와 함께 음역이 확장되며, 반주부의 베이스라인은 반음계적으로 진행하여 비통하고 격한 감정의 순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악보5>

<악보5> 45-54 마디


45
Führt ins Le - ben uns hin - ein, ihr laßt den Ar - men schul - dig wer - den, dann
fp
49
ü - ber laßt ihr ihn der Pein; denn al - - - - -
A♭;
am;
52
- - - - le Schuld rächt sich auf Er - - - - - den ihr laßt den
ff
p
ppp

61-66마디의 후주 부분은 A장조로 전조되었고 63마디에 감7화음의 음색을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하늘에 대한 원망과 고통스런 마음을 내면적으로 잘 드러내 주고 있으며 *ff*를 사용하여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pp*로 해소되는 듯 I화음으로 마무리된다. <악보6>

<악보6> 61-66 마디



b) H. Wolf, <Harfenspieler III>

Langsam und mit tief Klagendem Ausdrunk

(느리게 그리고 슬픈 탄식의 감정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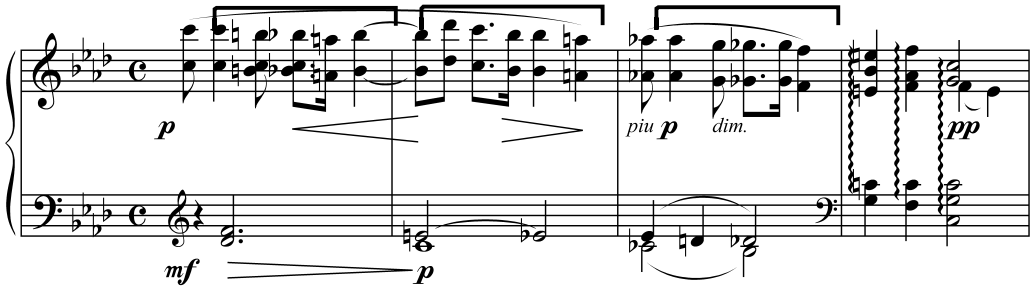
이 곡은 볼프에 의해 1888년 10월 30일에 작곡되어 졌다.
조성은 f단조이고, 곡은 모두 29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A-B 두 부분으로 나뉘어 통절 형식을 이루고 있다. 시의 구조는 2연 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형식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4> Harfenspieler III의 형식

형식	A	B
마디	1-16	17-29
조성	fm	fm
가사	1연	2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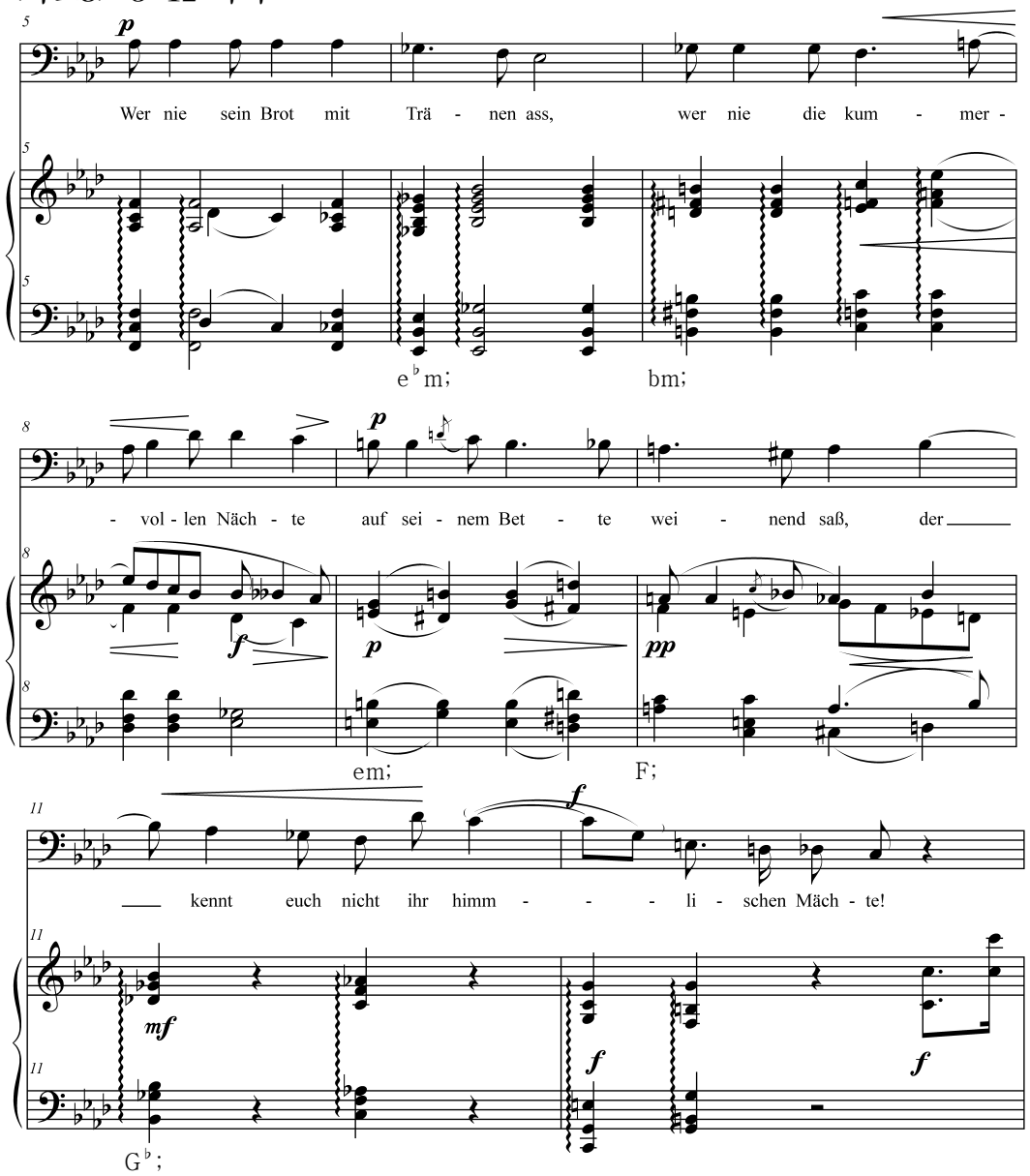
전주 부분 1-3 마디의 화성은 반음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마디부터는 하프 뜯는 소리를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하프너의 탄식하는 듯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슬픈 탄식의 모티브가 간주, 후주에도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하프너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악보7>

<악보7> 1-4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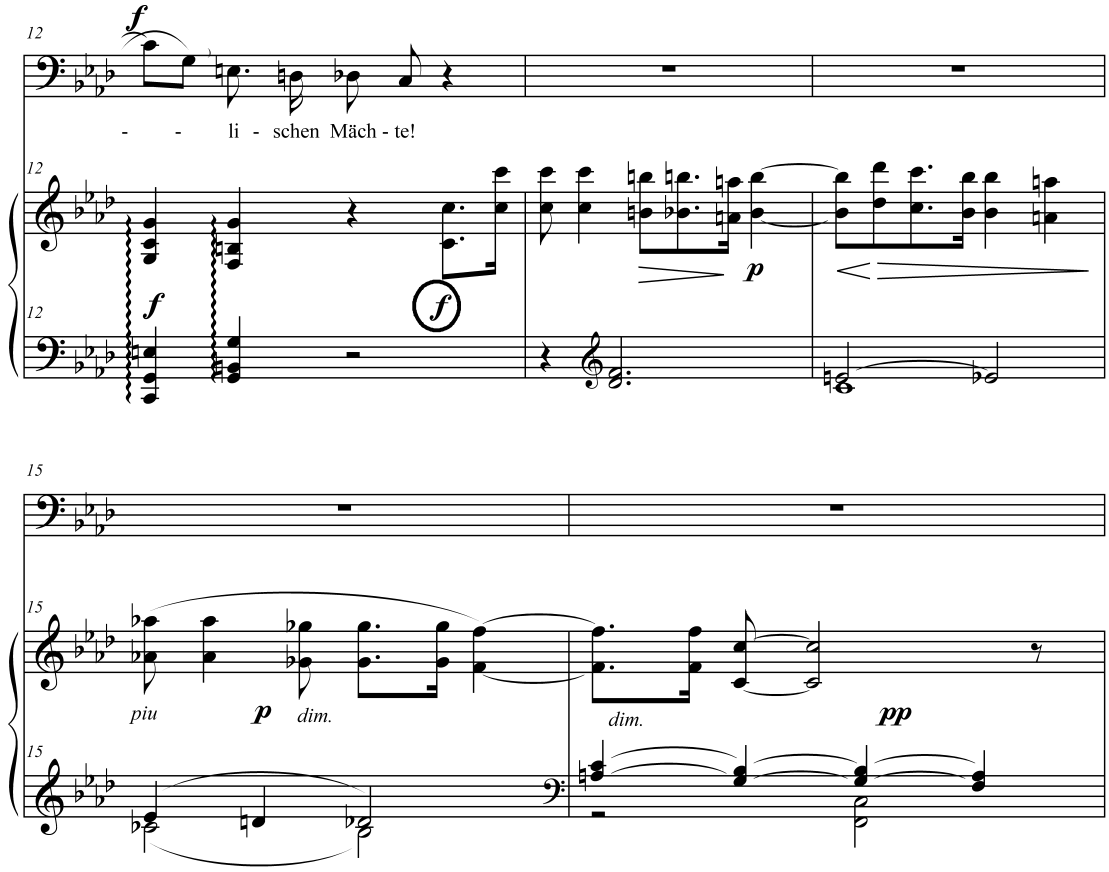
5마디부터 12마디까지 잦은 조성 변화의 비화성음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볼프의 특징으로써 조성이 정확하지 않으며 배회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불안한 마음을 당김음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낭송조의 성악 라인들이 코드진행 반주로 강조되어지고 있다.<악보8>

<악보8> 5-12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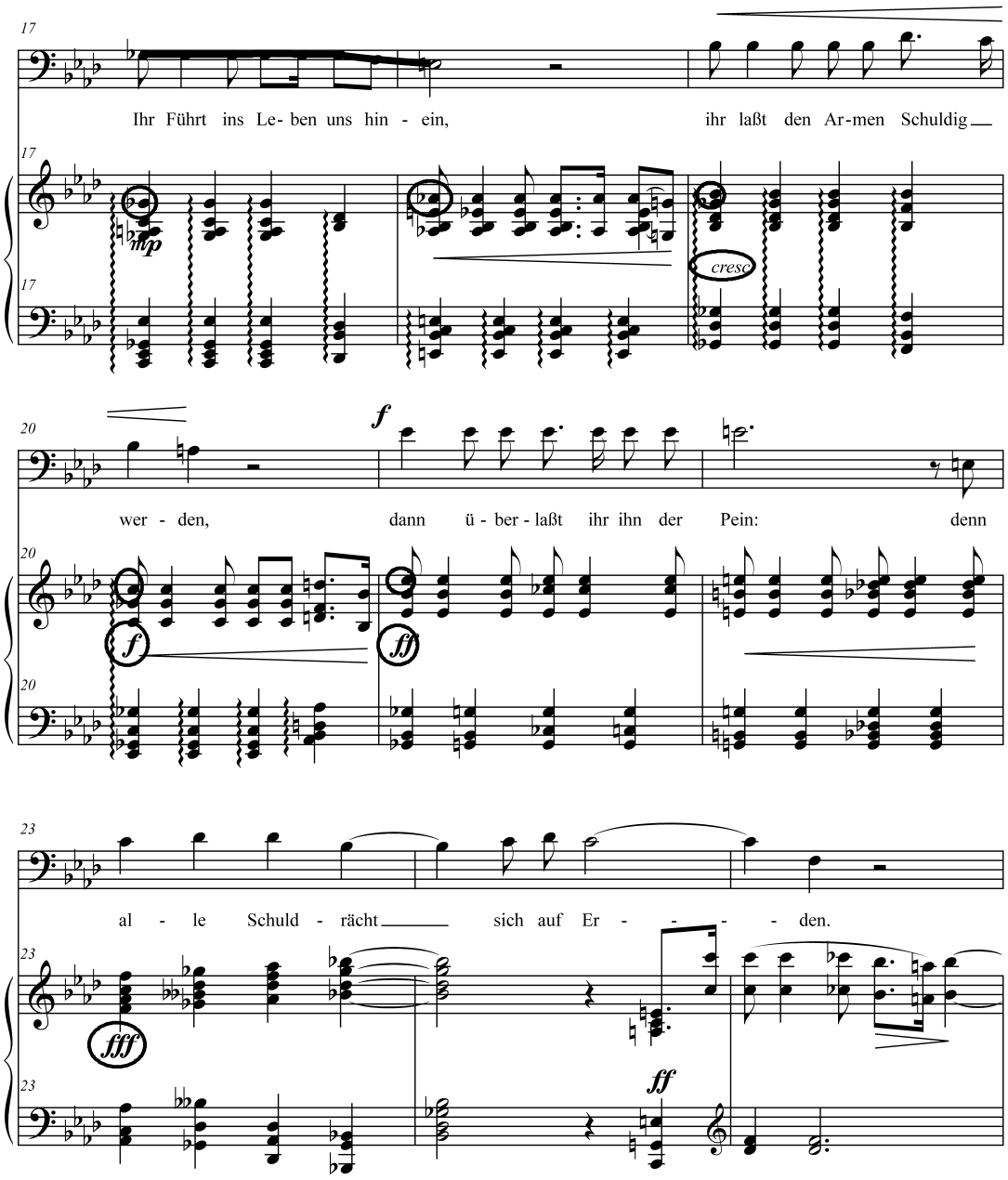
11-12마디에 나오는 'ihr himmlischen Mächte'(하늘의 힘) 노래 부분은 슈베르트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반주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악 선율이 독립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간주 부분은 앞의 가사를 그대로 받아 *f*로 시작하고 있으며 긴장감을 더해 준다. 전주와 똑같은 모티브가 간주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악보9>

<악보9> 12-16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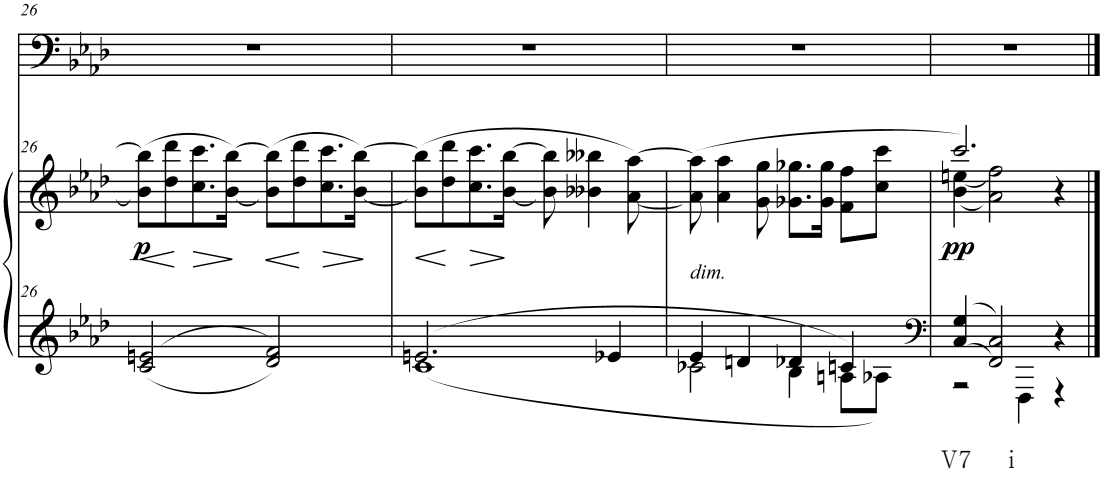
B부분의 반주부는 하프를 뜯는 듯한 넓게 퍼진 아르페지오 음형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성악 선율은 같은 음정이 반복되고 있고, 싱코페이션 진행으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반주 부분은 풍부한 화성의 코드가 계속적으로 상행 진행하며 음역의 확장과 폭넓은 셈여림의 사용으로 22마디의 'pein(고통)'까지 몰아치듯이 진행되어 한마디 뒤에 *fff*까지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다. 이것은 하프너의 절망적인 고통과 원망을 표현해 주고 있다.<악보10>

<악보10> 17-25 마디


17
Ihr Führt ins Le- ben uns hin - ein,
ihr laßt den Ar-men Schuldig
mp
cresc
20
wer - den,
dann ü - ber - laßt ihr ihn der Pein:
denn
f
f
ff
23
al - le Schuld - rächt
sich auf Er - - - - den.
fff
ff

후주는 하프너의 심리상태를 나타내주는 모티브가 동일하게 나오며, 정격종지를 사용하여 *pp*로 곡을 마무리하고 있다.<악보11>

<악보11> 26-29 마디



후기 낭만주의로 갈수록 악상기호와 음악용어가 좀 더 적극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반주부에서는 작곡가가 요구하고 있는 악상의 표현에 충실하게 연주해야 한다.

2)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고독에 몸을 바친 자)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고독에 몸을 바친 자
Ach! der ist bald allein;	아, 그는 곧 홀로 남게 되리라!
Ein jeder lebt, ein jeder liebt	모두들 살고 사랑하면서
Und lässt ihn seiner Pein.	그를 번민 가운데에 내버려 두리라!
Ja! lasst mich meiner Qual!	그래, 나를 고통에다 내맡겨다오!
Und kann ich nur einmal	한번 정말 고독해질 수만 있다면
Recht einsam sein,	그 땐
Dann bin ich nicht allein.	난 혼자가 아니리라
Es schleicht ein Liebender lauschend sacht,	사랑에 빠진 남자가 애인이 혼자 있나 하고
Ob seine Freundin allein?	귀를 쫑긋하고 살며시 다가오듯이
So überschleicht bei Tag and Nacht	밤낮없이 그렇게 찾아온다네
Mich Einsamen die Pein,	번민이 고독한 나를!
Mich Einsamen die Qual.	고뇌가 찾아 온다네 고독한 나를!
Ach, werd ich erst einmal	아! 나 언젠가 무덤 속에서 고독할 때에야 비로소
Einsam im Grabe sein,	번민도 고통도
Da lässt sie mich allein!	날 홀로 두리라[20]!

20) Goethe, Johann W., *Wilhelm Meisters Lehrjahre*, 안삼환 역, 서울: 민음사, 1999, p.207-208

c)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1>

Sehr Langsam (아주 느리게)

슈베르트는 1815년에 이 시를 작곡한 바 있다(D.325).

이 곡은 슈베르트가 1816년에 두 번 작곡하였는데, 1822년에 두 번째 version b를 Op.12 no.1로 출판하였다. 이 시는 소설의 2권 13장에서 앞의 시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ss" 를 읊고 난 뒤에 나온다.

빌헬름이 하프너를 찾아가서 그에게 노래를 부탁하자 하프너는 조용히 하프를 켜고 고독에 대해 노래를 부른다.

이 시는 하프너의 극도에 달한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외로움과 자신이 공존함으로써 위안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하프너의 외로움과 힘든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의 조성은 a단조이며 2/2박자이고 52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곡의 형식은 A-B-C 세 부분으로 되어 통절 형식을 이루고 있다. 시의 구조는 4연 16행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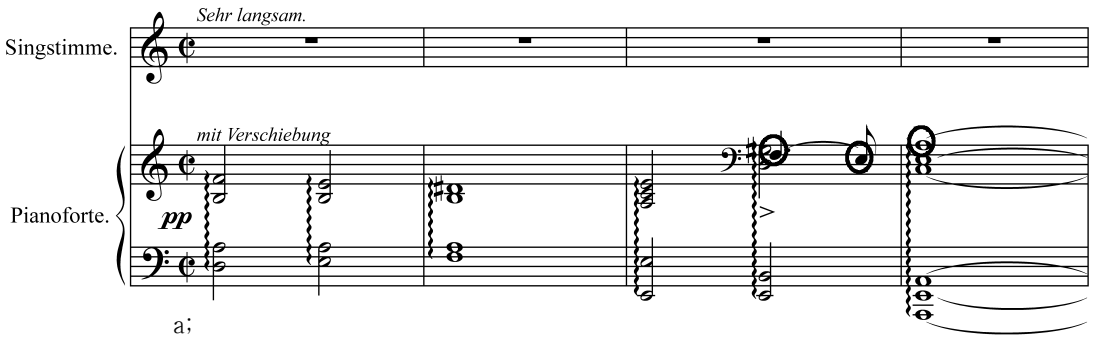
이 곡의 형식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5>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1의 형식

형식	A	B	C
마디	1-14	15-30	31-52
조성	am C am	F A	am
가사	1연	2연, 3연, 4연 1행	4연 2, 3, 4행

전주 부분은 a단조이고 하프를 튕기는 듯한 아르페지오의 음형이 하프너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3마디에 F음이 한층 더 아픔을 자아내고 있다.<악보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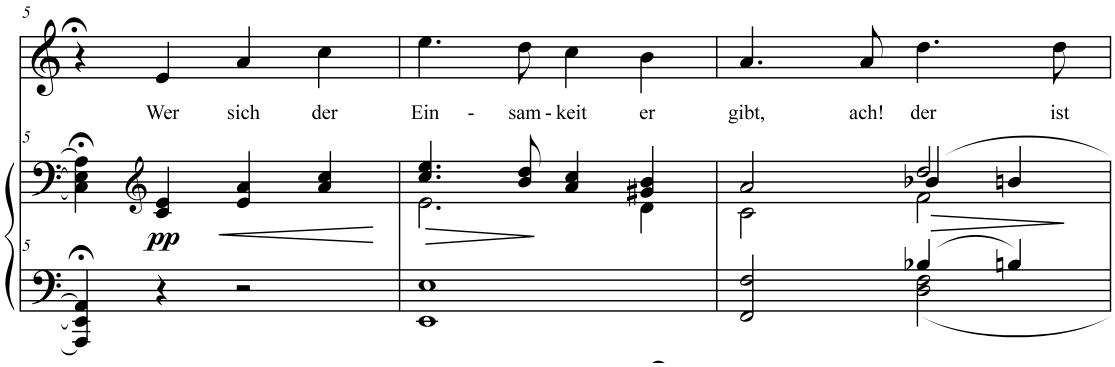
<악보12> 1-4 마디



넓게 펼쳐진 성악선율에 화음으로 된 반주부가 성악선율과 중복되어 나오면서 낭송 되어지는 듯한 성악선율을 더 살려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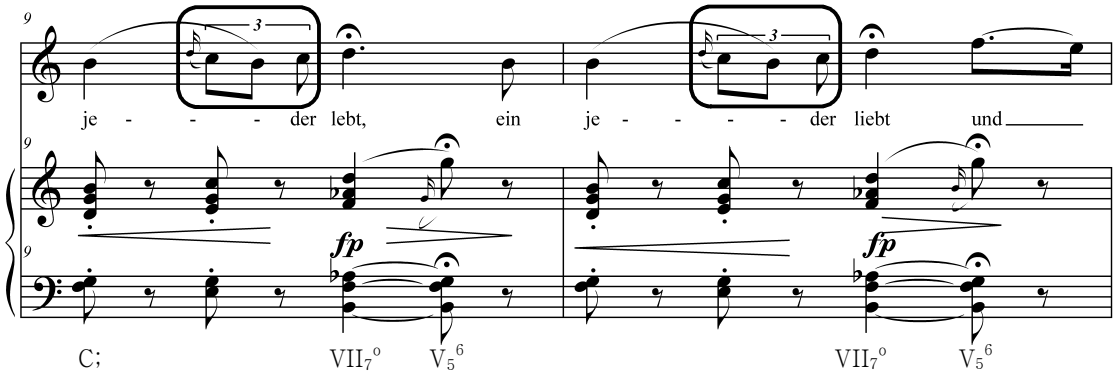
7마디에 'ach!'에 담겨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6-7마디의 'Einsamkeit ergibt'를 점차 여리게 데크레센도되게 하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악보13>

<악보13> 5-7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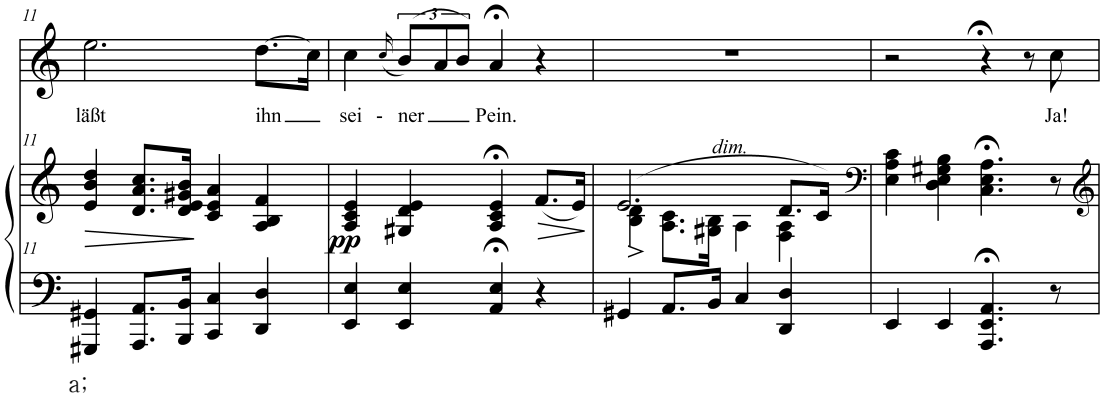
9-10마디에 나란한 조인 C장조로 전조되었고 감7화음의 음색을 사용함으로써 긴장감을 더해주고 5도 화음으로 다시 해결해 준다. 슈베르트는 이 부분에 꾸밈음을 통하여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더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14>

<악보14> 9-10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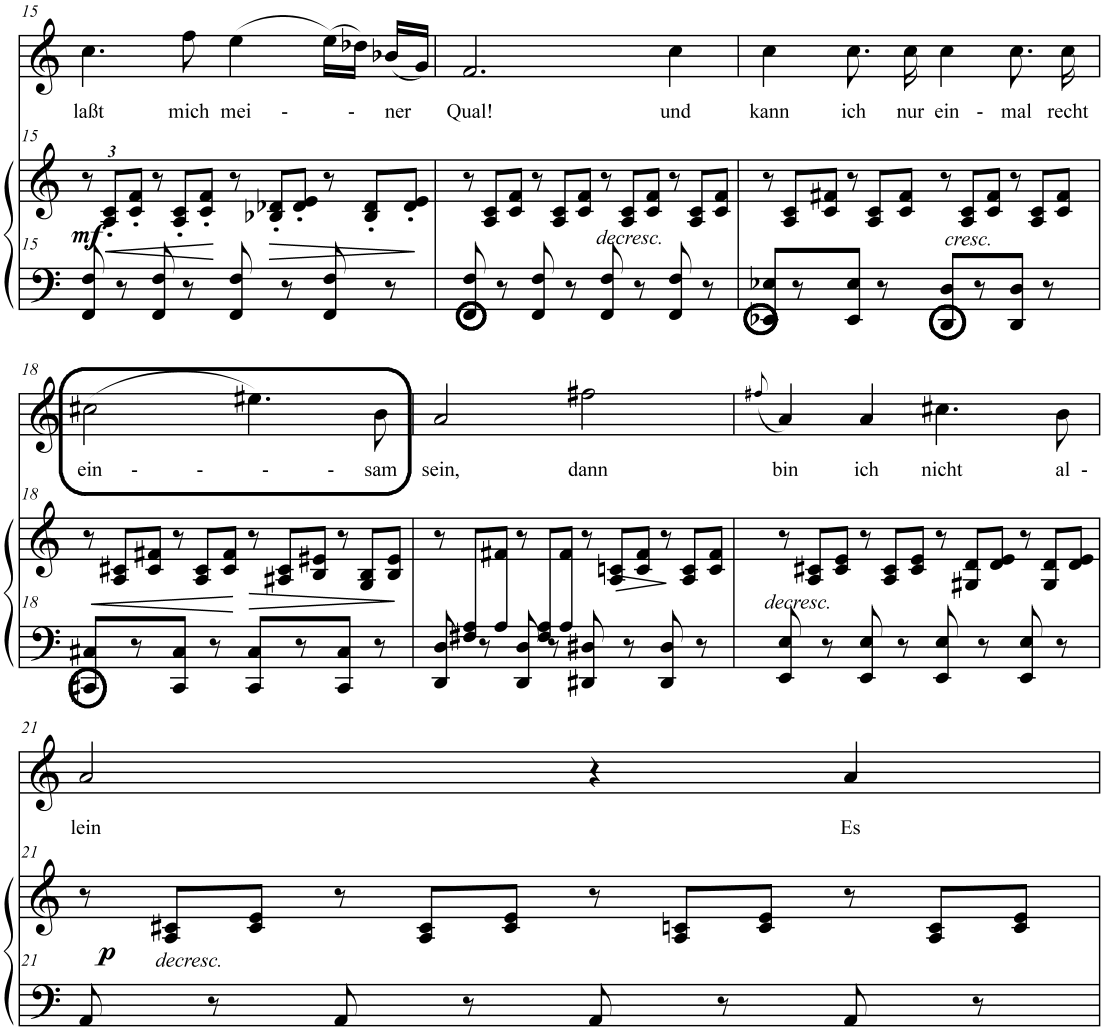
11-12마디에 a단조로 전조되며 반음계 진행으로 'Und lässt ihn seiner Pein.(그를 번민 가운데에 내버려 두리라!)' 가사의 의미를 더 돋보이게 해준다. 간주에서 여운처럼 다시 화성 변화가 진행되어 디미누엔도(*dim.*)로 마무리하여 고통의 내면적인 모습이 한층 더 잘 표현되고 있다.<악보15>

<악보15> 11-14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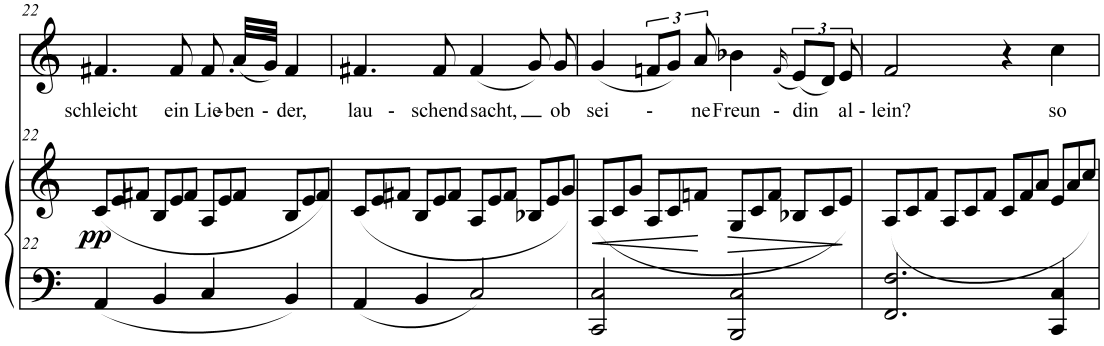
B 부분에서는 반주부가 하프를 튕기는 듯한 느낌으로 차분하게 연주한다. 18마디에 'einsam'(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음의 길이를 늘여서 표현하고 있으며, 15-21마디에 나오는 반주부 Bass의 반음계적인 화성 진행과 3연부의 패턴은 마음의 감정을 고조시켜 주고 있다.<악보16>

<악보16> 15-21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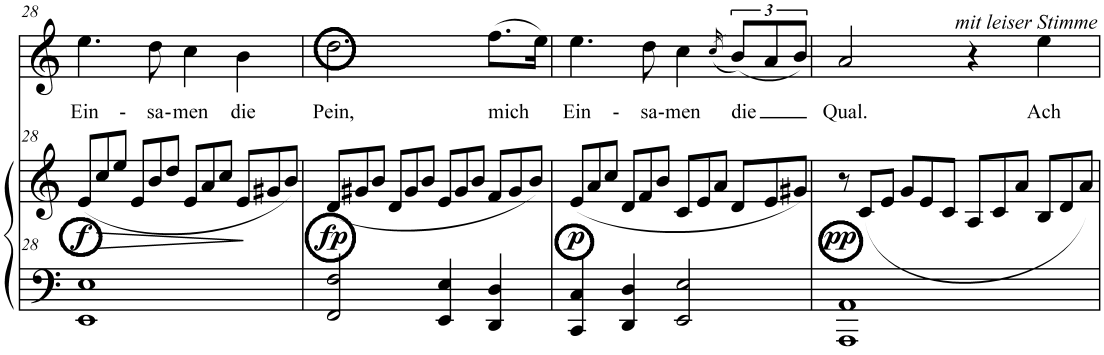
22-24마디에 성악선율은 꾸밈음을 사용하여 가사의 의미를 더욱 잘 나타내주고 있다.<악보17>

<악보17> 22-25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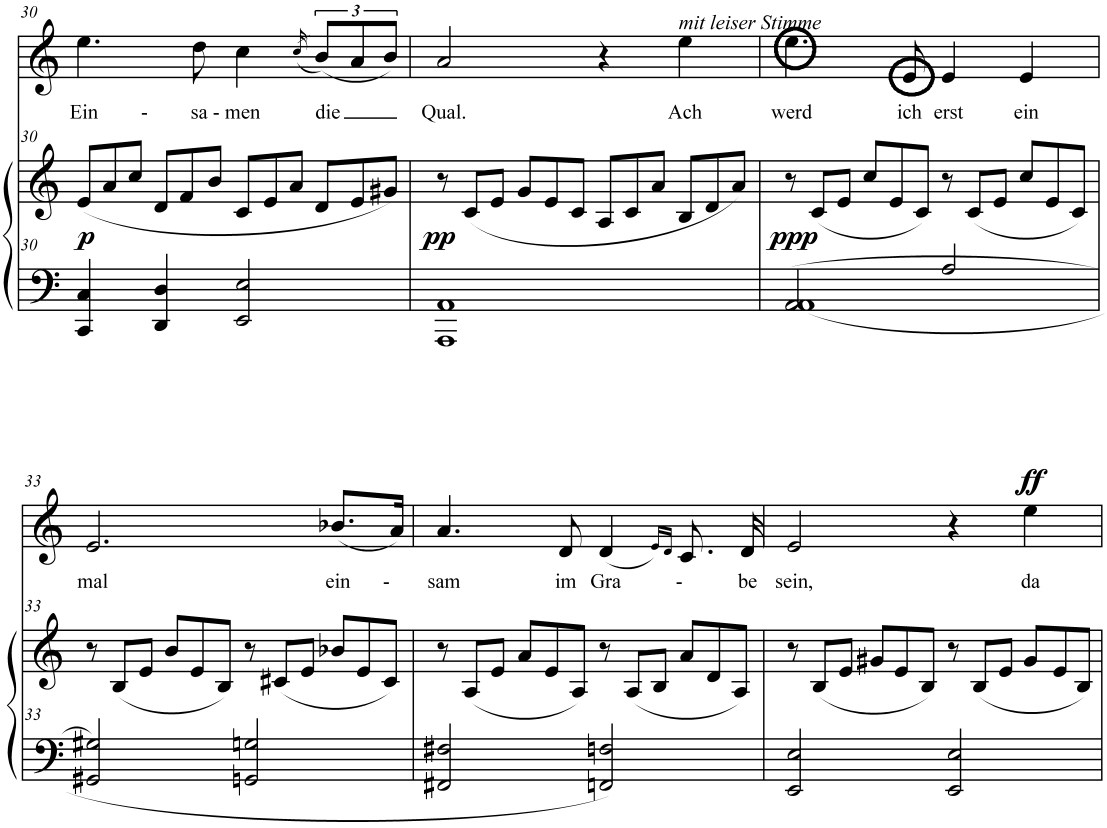
28-31마디에 높은 음정을 사용하여 고독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표현해 주고 있다. 셈여림의 변화로 폭발된 감정을 가라앉히듯이 정리하고 있다.<악보18>

<악보18> 28-31 마디



32마디의 'werd'와 'ich' 사이를 한 옥타브 하행하였으며, 다음에 나오는 'im Grabe'(무덤에)도 낮은 음역으로 노래가 불러지고 있다. C 부분은 *ppp*로 시작하며 매우 여린 목소리로(*mit leiser Stimme*) 부르며 하프너의 외로운 마음을 고통스런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음계적으로 하행진행하여 각기 다른 화성이 가사의 내용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악보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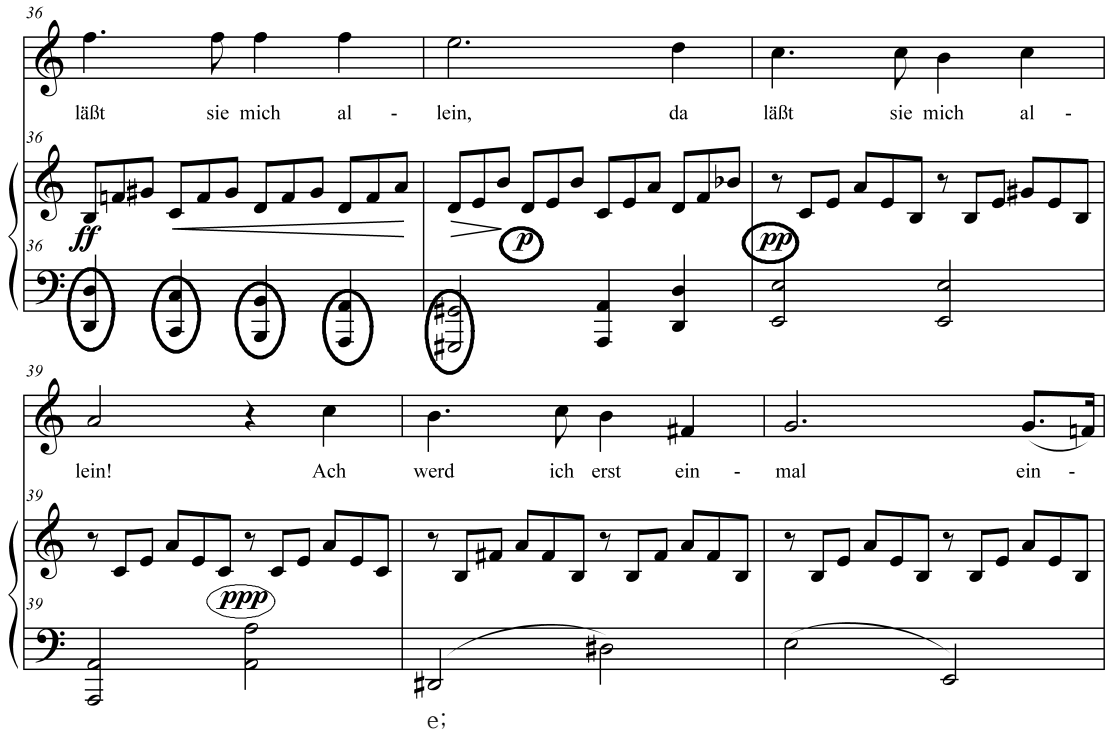
<악보19> 30-35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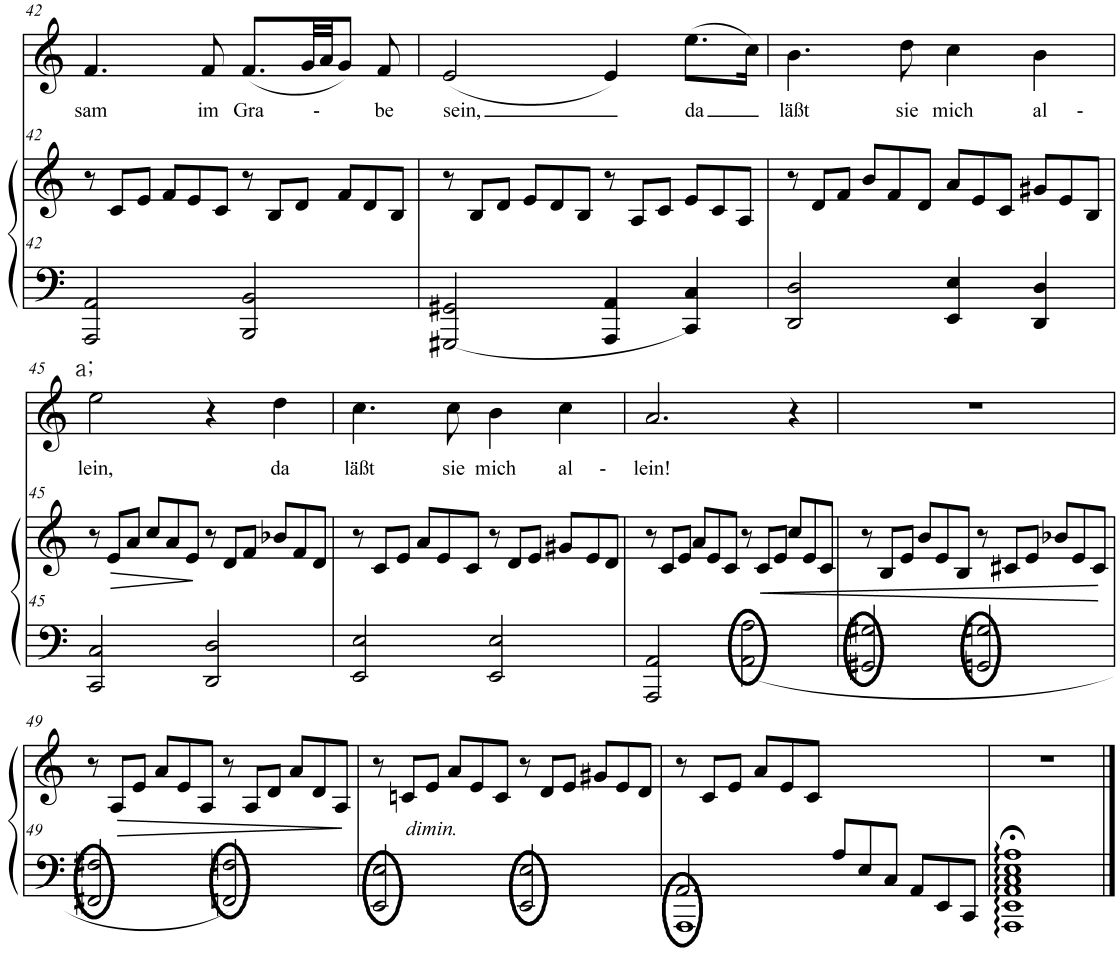


연이어 36마디에 *ff* 로 성악 선율의 최고음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고 반주부는 베이스 라인이 반음계적으로 하행진행하고 있으며 *p pp ppp* 의 셈여림의 변화로 외로움과 고통을 내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Da laßt sie mich allein'(날 홀로 두리라) 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며 영원한 안식을 표현하고 있다. 39마디에 분위기 변화를 주기 위하여 e단조로 전조되면서 *ppp*로 시작하여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노래한다.

후주는 반주부의 Bass가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며 오른손의 선율은 망설임의 여운이 남는 듯 보이나 하프너의 감정을 마무리하듯이 하행하여 점점 사라지는듯한 분위기로 마무리된다.<악보20>

<악보20> 36-52 마디




42
sam im Gra - be sein, da läßt sie mich al -
42
42
45
a;
lein, da läßt sie mich al - lein!
45
45
49
dimin.
49

d) H. Wolf, <Harfenspieler I>

Sehr getragen, schwermutig

(음을 충분하고 우울하게)

이 곡은 1888년 10월 27일에 작곡되었다.

조성은 g단조이며 4/4박자로 되어 있다. 모두 39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은 A-B-A′ 세 부분으로 통절 형식을 이루고 있다.

시의 구조는 4연 1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의 형식을 도표화하며 다음과 같다.

<표6> Harfenspieler I의 형식

형식	A		B	A′
마디	1-12	13-17	18-29	30-39
조성	gm E♭		D	gm
가사	1연, 2연		3연, 4연 1행	4연 2,3,4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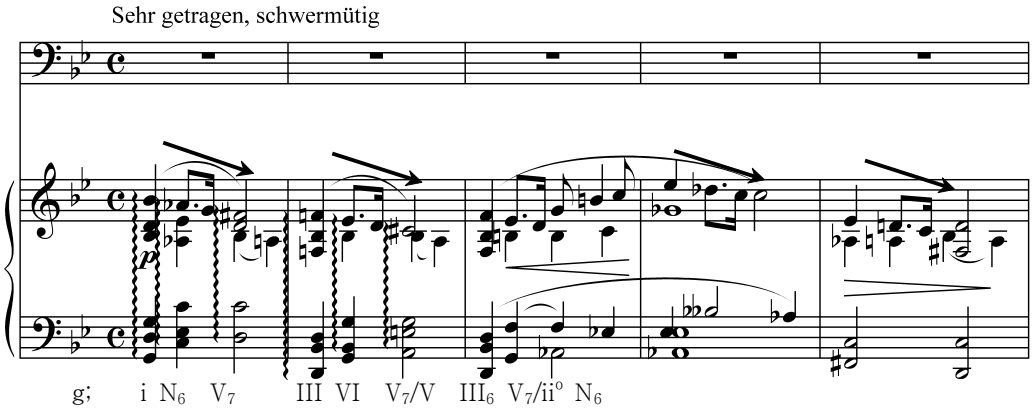
볼프는 이 곡을 슈베르트와 달리 시를 반복하지 않았다.

전주 부분은 ♩ ♩.♫♩ 의 리듬형의 이곡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하프를 튕기는 듯한 아르페지오 음형을 사용하여 고독한 하프너의 음울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 묘사되고 있으며 반음계적으로 감4도로 하행 진행되고 있다.

슈베르트의 간단한 전주에 비해 볼프는 훨씬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다.

g단조의 주화음이 나오고 반음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잦은 화성 변화, 해결되지 않는조성과 비화성음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느낌을 주어 하프 켜는 노인의 외로움과 슬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악보21>

<악보21> 1-5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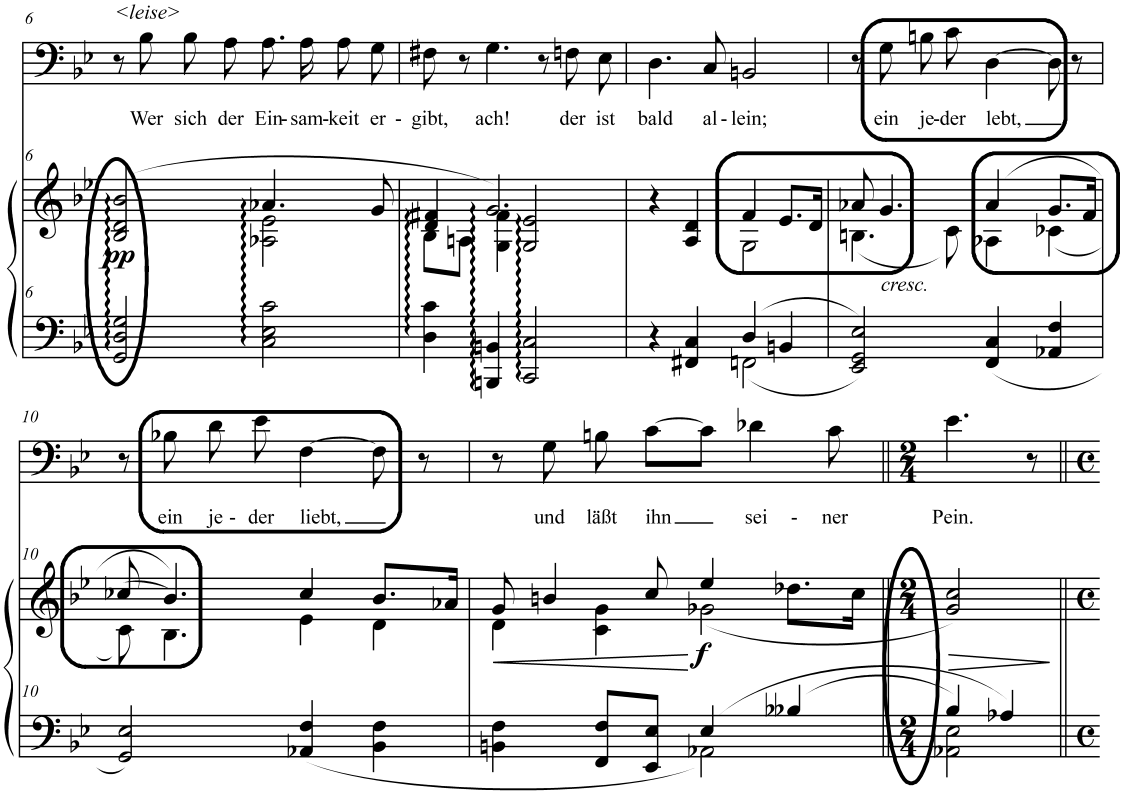


반주부의 화성이 아르페지오로 선행하여 노래하고 성악부는 'wer'와 함께 반주부를 뒤따라 나온다. 성악 선율은 거의 낭송하듯이 불러지고 있으며 노래와 반주부가 거의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8-10 마디의 반주부 오른손 윗선율이 성악선율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동형진행[21]되고 있다. 크레센도와 함께 폭이 넓은 화성이 진행되면서 'pein'(고통)을 잘 표현해 주며 또한 박자의 변화로 시의 운율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악보22>

21) 동형진행 :같은 모양의 가락이 높이만 다르게 반복되는 형태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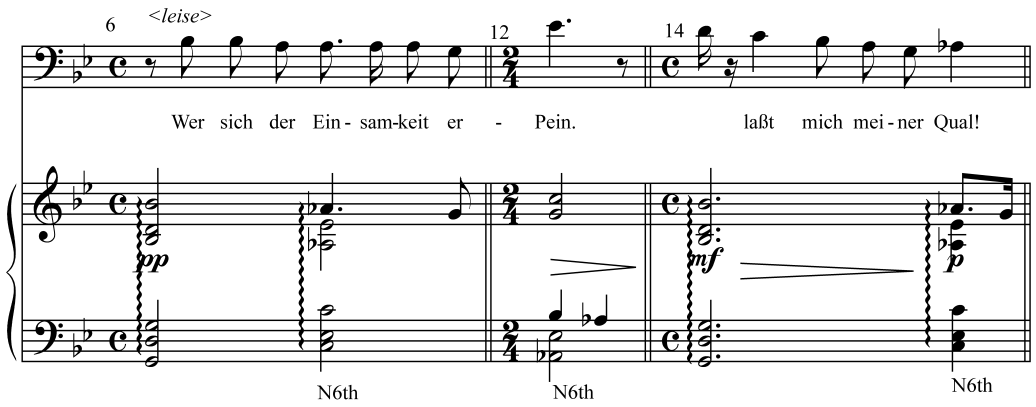
<악보22> 6-12 마디



6마디 'Einsamkeit'(고독), 12마디 'Pein'(고통) 14마디 'Qual'(아픔) 등 곳곳의 화성에 [22]N6th(Neoapolitan 6th chord)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괴로움, 고통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악보23>

22) 17, 18세기 이탈리아 나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곡가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던 화음으로 II도를 사용하여 장조에서는 근음과 5음이 반음 내려가고 단조에서는 근음이 반음 내려가는 화음이다.

<악보23>N6th(Neoapolitan 6th 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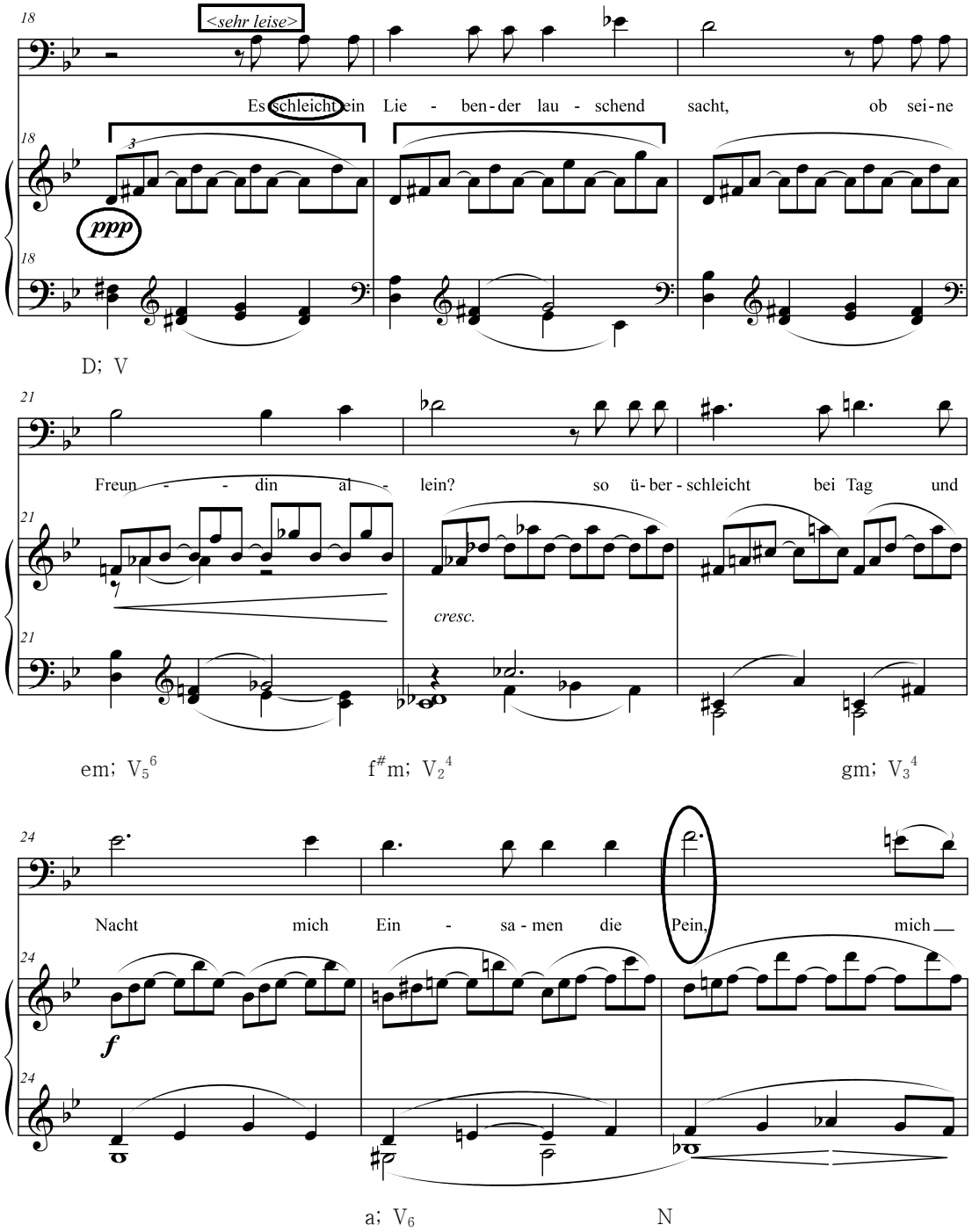
B 부분에서는 sehr leise(매우 여리게)의 음악 용어가 노래가 시작할 때 나타나 있으며, 가사의 표현도 Schleicht(살금살금 기다)라고 나타나 있고 반주부는 새로운 피아노 패턴이 등장하여 당김음으로 처리된 장조의 3연음부 형태로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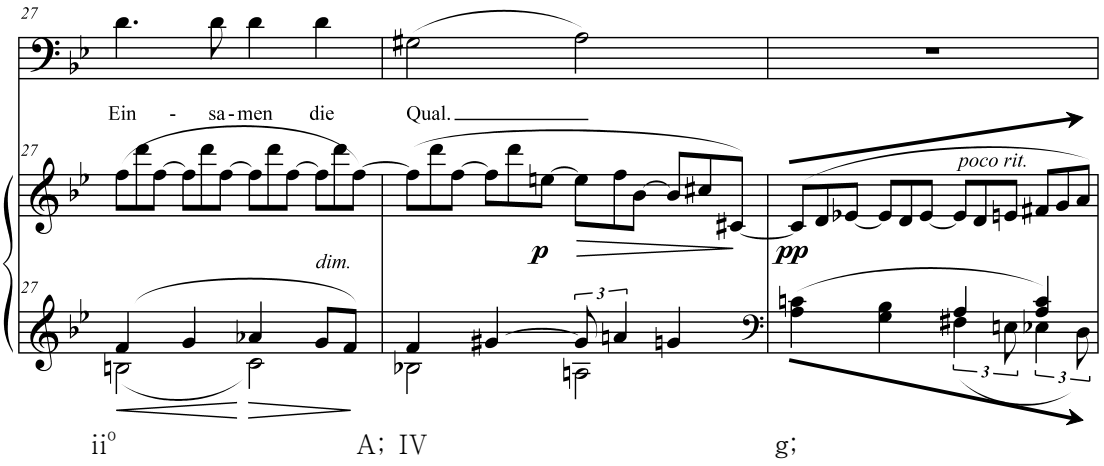
반주부는 반음계로 상승 진행되고 있으며 성악선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잦은 조성의 변화와 음역도 넓지 않지만 고음역의 음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감정이 점점 고조되어져 26마디 Pein(고통)의 f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Pein(고통)'은 B♭ 7화음인 나폴리 화음을 배치하여 독특한 음색을 사용하여 클라이막스(climax)를 나타낸다.

잦은 조성의 변화는 시의 내용에 따라 조바꿈되면서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볼프 작곡기법의 특징이다.

29마디의 오른손은 d - e♭ - e - f# - g - a 로 상행하고 왼손 아래 성부는 a - g - f# - e - e♭ - d 로 반진행하여 이곡의 주된 조성인 g단조로 전조되어 A'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악보24>

<악보24> 18-29 마디


18
<sehr leise>
Es schleicht ein Lie - ben - der lau - schend sacht, ob sei - ne
ppp
D; V
21
Freun - - din al - lein? so ü - ber - schleicht bei Tag und
cresc.
em; V5 6
f#m; V2 4
gm; V3 4
24
Nacht mich Ein - sa - men die Pein, mich
f
a; V6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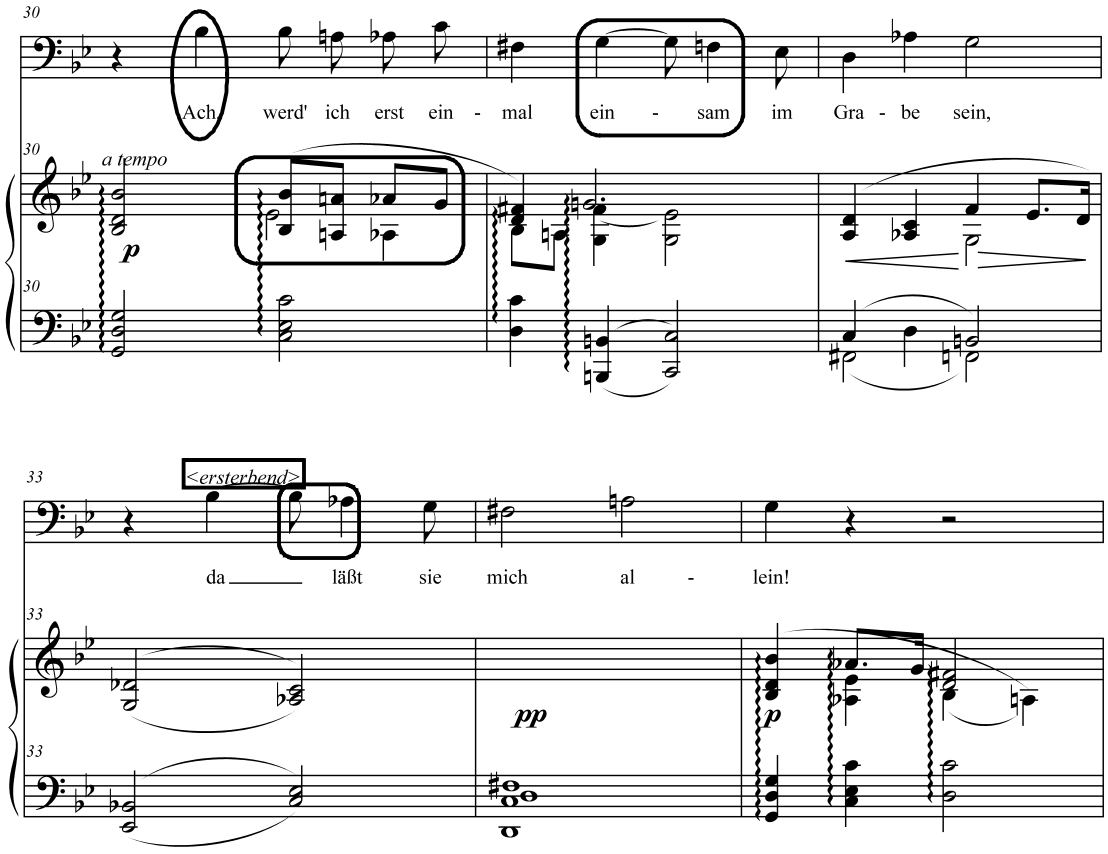


A′ 부분은 다시 A 부분과 같은 하프를 튕기는 듯한 아르페지오 음형이 나온다. g단조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A 부분과 거의 흡사한 노래 선율과 반주부가 나타나며 약간의 리듬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약박인 둘째 박자에 'Ach'의 감정은 강한 감탄사가 아닌 약간의 긴장감만 가진체 약화된 상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einsam'의 당김음을 사용하여 'im Grabe'(무덤속에)를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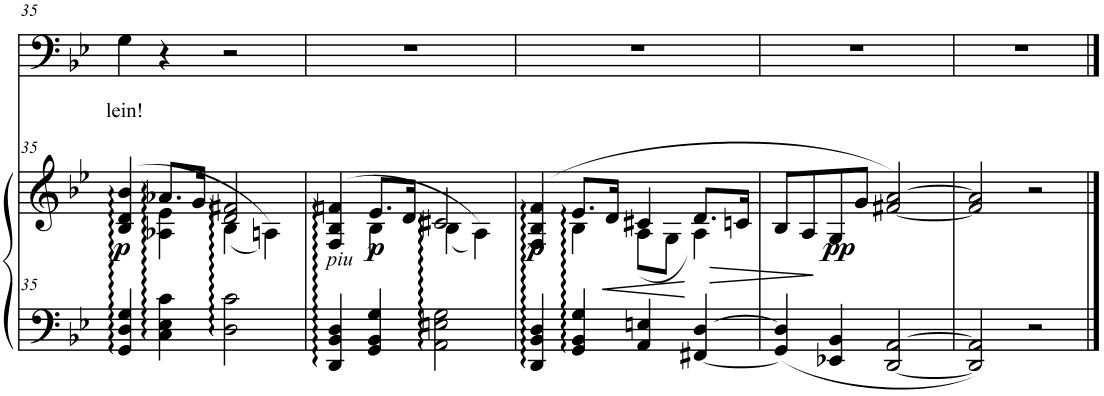
33마디에서는 'ersterbend'처럼 거의 소멸되는 듯한 분위기로 약박에서 노래가 시작되며 'läßt'의 당김음을 사용하여 침울함, 고요함 등 마지막 행의 가사 'da läßt sie mich allein(날 홀로 두리라)'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다.<악보25>

<악보25> 30-35 마디


30
Ach werd' ich erst ein - mal ein - sam im Gra - be sein,
30
a tempo
p
30
33
<ersterbend>
da läßt sie mich al - lein!
33
pp
p
33

후주에서는 전주와 거의 동일한 모티브가 나타나며 39마디는 딸림화음으로 끝남으로써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듯한 여운을 느끼게 한다.<악보26>

<악보26> 35-39 마디



3) An die Türen (문간에 가만히 다가가)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문간에 가만히 다가가
Still und sittsam will ich Stehen,	예의를 지키며 말없이 서 있으리라
Fromme Hand wird Nahrung reichen,	자비로운 손이 먹을 것을 건네주면
Und ich werde weitergehn.	이 몸은 가던 길 계속 갈 뿐
Jeder wird sich glücklich scheinen,	내 모습 나타나면 누구나
Wenn mein Bild vor ihm erscheint,	자신이 행복하다 느끼며
Eine Träne wird er weinen,	한 방울 눈물을 흘리리로다
Und ich weiss nicht, was er weint.	이 몸은 알지 못할래라, 그 우는 까닭을[23]

23) Goethe, Johann W., *Wilhelm Meisters Lehrjahre*, 안삼환 역, 서울: 민음사, 1999, p.514

e) F. Schubert,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3>

Maßig(보통 빠르기) *in gehender Bewegung.* (걸어 가듯이)

이 곡은 1816년에 두 번 작곡되었고 1822년에 두번째 version b가 Op.12 no.3으로 출판되었다.

이 시는 소설의 5권 13장에 나오는 노인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이다. 빌헬름과 극단단원들이 머물던 집이 불에 타버리고 노인은 방화자로 의심받게 되자 빌헬름은 걱정하게 된다. 빌헬름은 이 모든 일을 염려하고 있는데 하프 타는 노인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걸어온다.

이 곡은 미칠 것같이 느끼는 한 불행한 사람의 자기 위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곡의 조성은 a단조이고 4/4 박자이고 모두 50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은 A-A′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변형유절형식이다. 시의 구조는 2연 8행을 이루고 있다.

이 곡의 형식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7> Gesänge des Harfners Op.12 no.3의 형식

형식	A	A′
마디	1-25	26-50
조성	am	em am
가사	1연	2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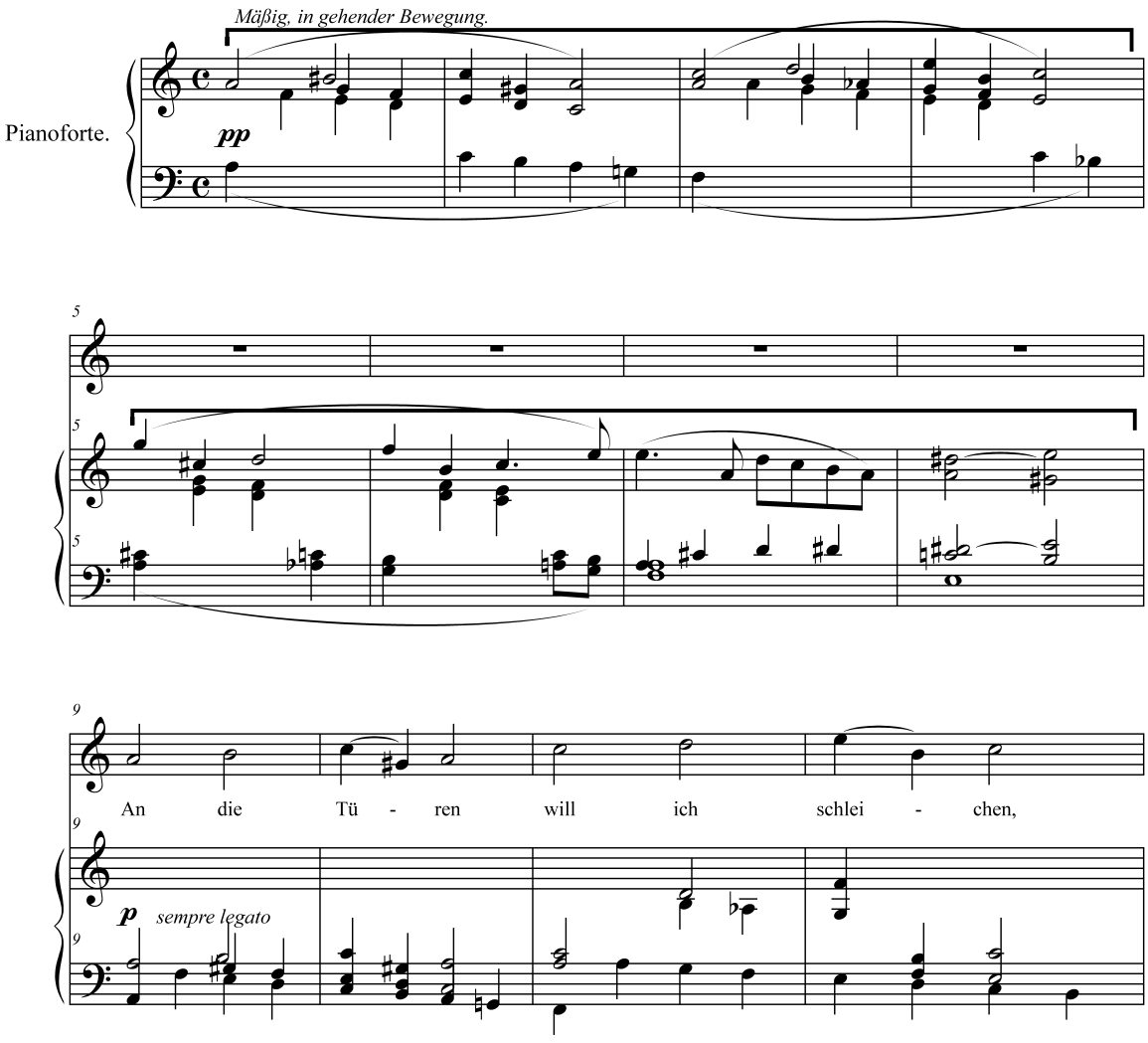
A 부분은 움직임에 대한 장면 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

곡의 성격을 드러내는 첫머리의 모티브는 4분음표가 연이어 나오는 데 걸음걸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2마디씩 노래가 끊이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4 마디 단위로 한 행을 노래하여 프레이즈가 연결되도록 한다.

9마디에 반주부를 보면 오른손에 첫 박자는 강으로 성악 선율과 함께 움직이지만 왼손 성부는 첫 박자를 약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박자부터 11마디 첫 박까지 하나로 연결되게 반주하여 프레이즈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악보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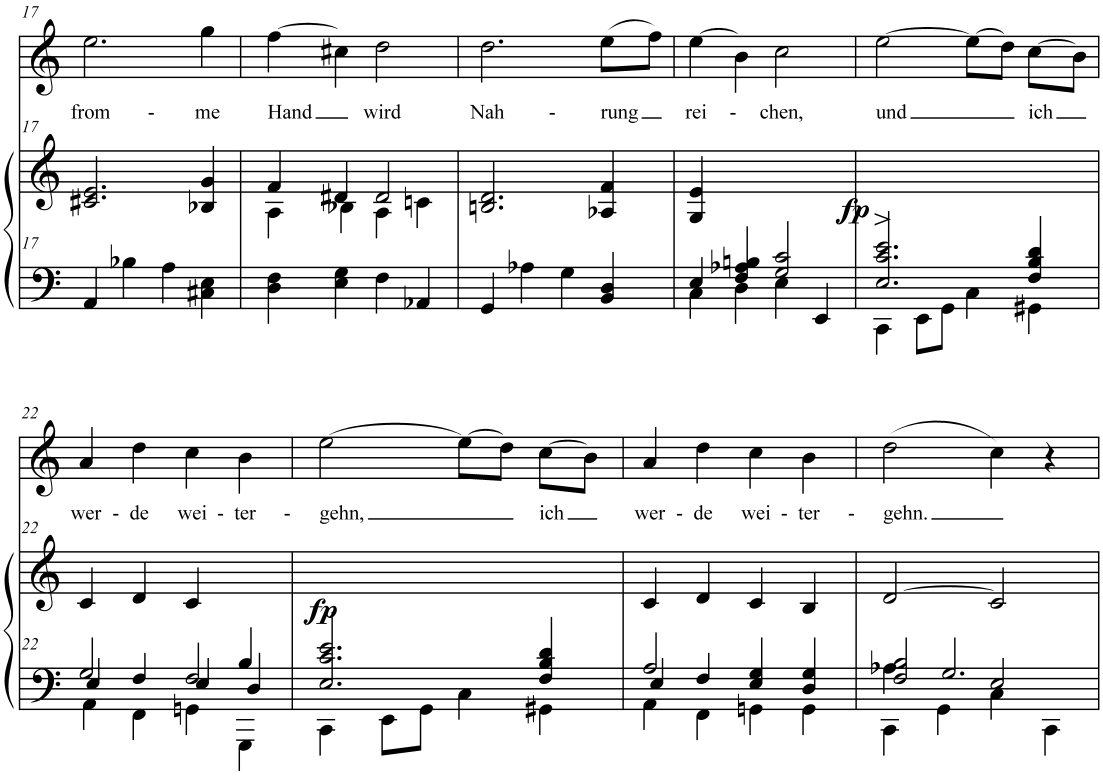
<악보27> 1-12 마디



반주부의 Bass는 4분음표가 반복되어 나오고, 4마디로 된 프레이즈가 동형 진행되고 있으며 시의 강약율의 운율에 맞게 마디의 첫 박마다 강세를 둔다.

21-25마디에 가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앞부분과는 달리 음의 길이를 늘이지 않고 'Werde weitergehn' 가사에 음절마다 4분음표를 사용하여 리듬을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한 번 더 반복시키고 있다.<악보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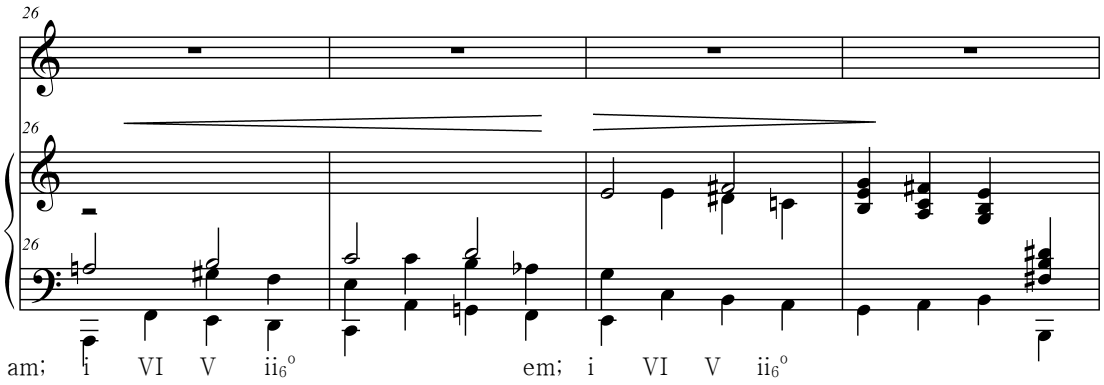
<악보28> 17-25 마디



26마디와 28마디가 서로 동형 진행되고 있으며 a단조에서 e단조로 전조가 되면서 서로 동형 진행되고 있으며 상승되는 듯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악보29>

<악보29> 26-29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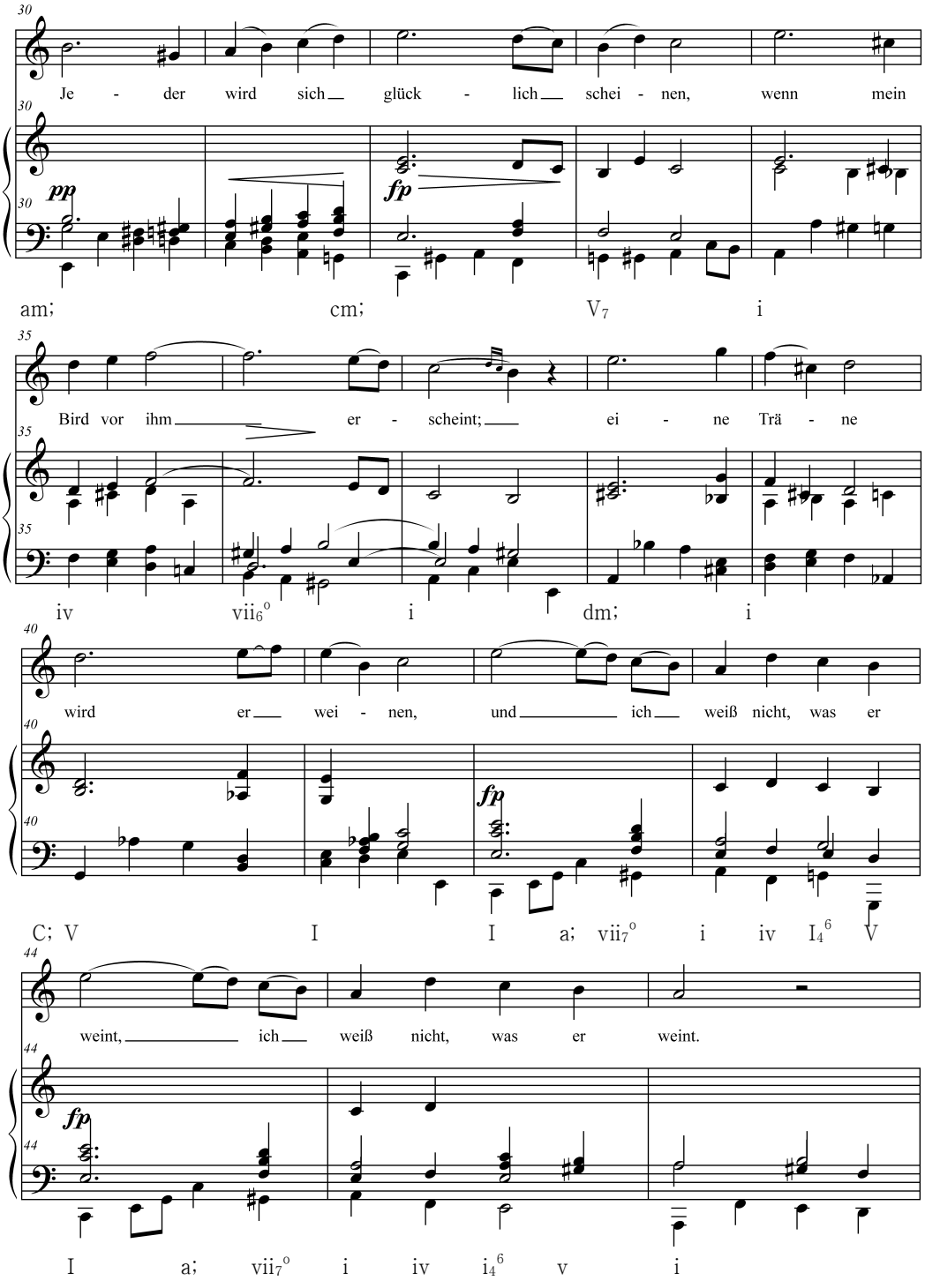


A′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하프너를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화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A′ 부분은 A 부분과 거의 리듬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주부의 베이스라인이 4분음표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조성이 여러 번 바뀌면서 나타나는 잦은 화성의 변화는 불안정한 노인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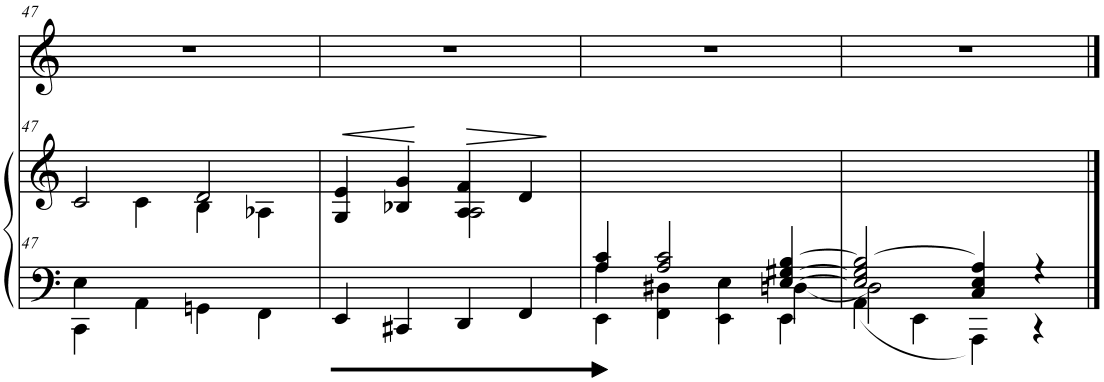
42-45마디에서는 가사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으며, 동형진행하고 있다. 슈베르트는 시의 운율과 음악의 선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악보30> 30-46 마디


Je - der wird sich glück - lich schei - nen, wenn mein
pp
fp
am; cm; V7 i
Bird vor ihm er - scheint; ei - ne Trä - ne
iv vii6° i dm; i
wird er wei - nen, und ich weiß nicht, was er
fp
C; V I I a; vii7° i iv I4 6 V
weint, ich weiß nicht, was er weint.
fp
I a; vii7° i iv i4 6 v i

후주 부분은 걸음걸이를 상징하듯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된다.<악보31>

<악보31> 47-50 마디



f) H. Wolf, <Harfenspieler II>

Langsam, aber nicht zu schleppend

(느리게, 그러나 박자가 늘어지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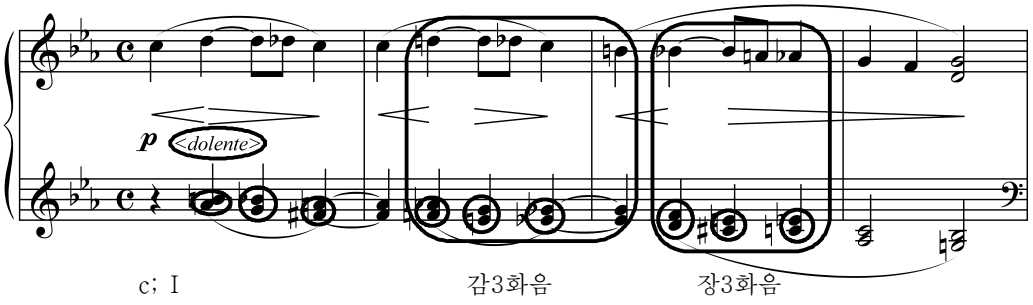
이 곡은 1888년 10월 29일에 작곡되었다. 조성은 C단조이고 박자는 4/4박자이며 곡 전체의 마디 수는 31마디로 되어 있다. A, B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통절형식을 이루고 있다. 시는 2연 8행으로 되어 있다.
이 곡의 형식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8> Harfenspieler II의 형식

형식	A	B
마디	1-16	17-31
조성	cm	fm
가사	1연	2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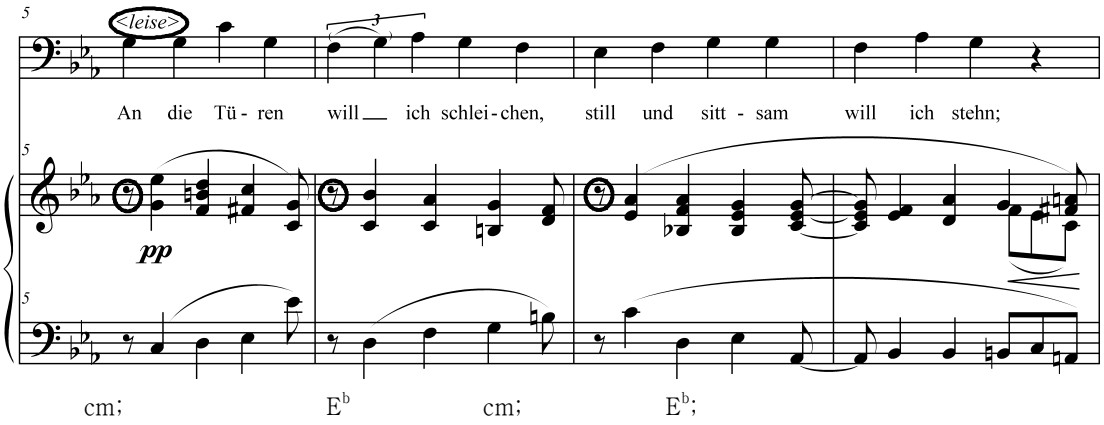
전주부분은 반음계 진행과 싱코페이션의 리듬이 나타나며, 감3화음과 장3화음의 사용으로 긴장감을 가지며, 조성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것은 하프너가 힘없이 걸어가는 것을 장면으로 묘사한 듯 그의 불안한 심리와 애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악보32>

<악보32> 1-4 마디



성악 선율과 반주부의 리듬이 계속적으로 엇갈리게 나오며, 반주부의 𝄾 를 사용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게 되어 노인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악 선율은 크게 도약이 없으며, 반주부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조성의 변화는 하프너의 방황과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악보33>

<악보33> 5-8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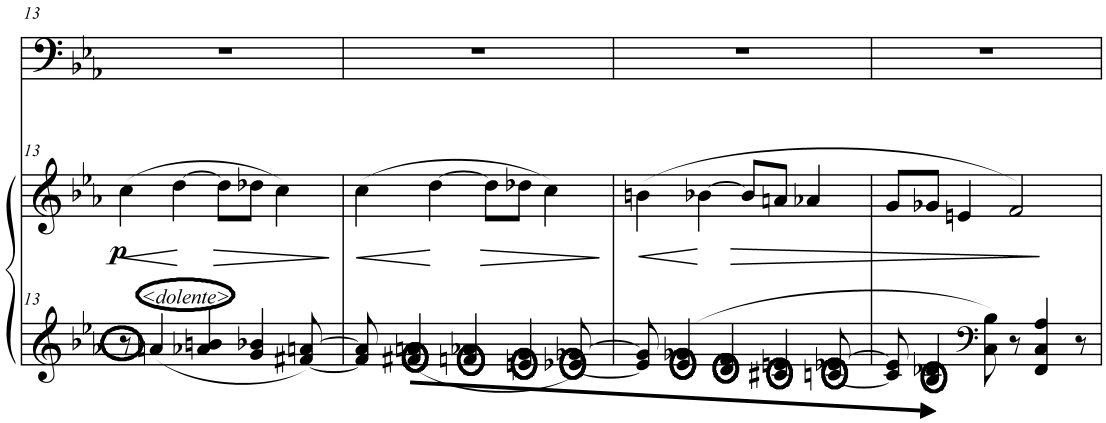


볼프는 슈베르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악상기호와 음악 용어를 프레이즈 서두에 *leise*(조용히), *dolente*(애절하게)라고 섬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으며 셈여림의 변화도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간주 부분에서는 전주와 같은 모티브로 진행되고 있으며 𝄾 사용으로 오른손, 왼손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감정을 더 고조시켜 준다. 반음계 진행되고 있으며 베이스 라인은 순차적인 하행진행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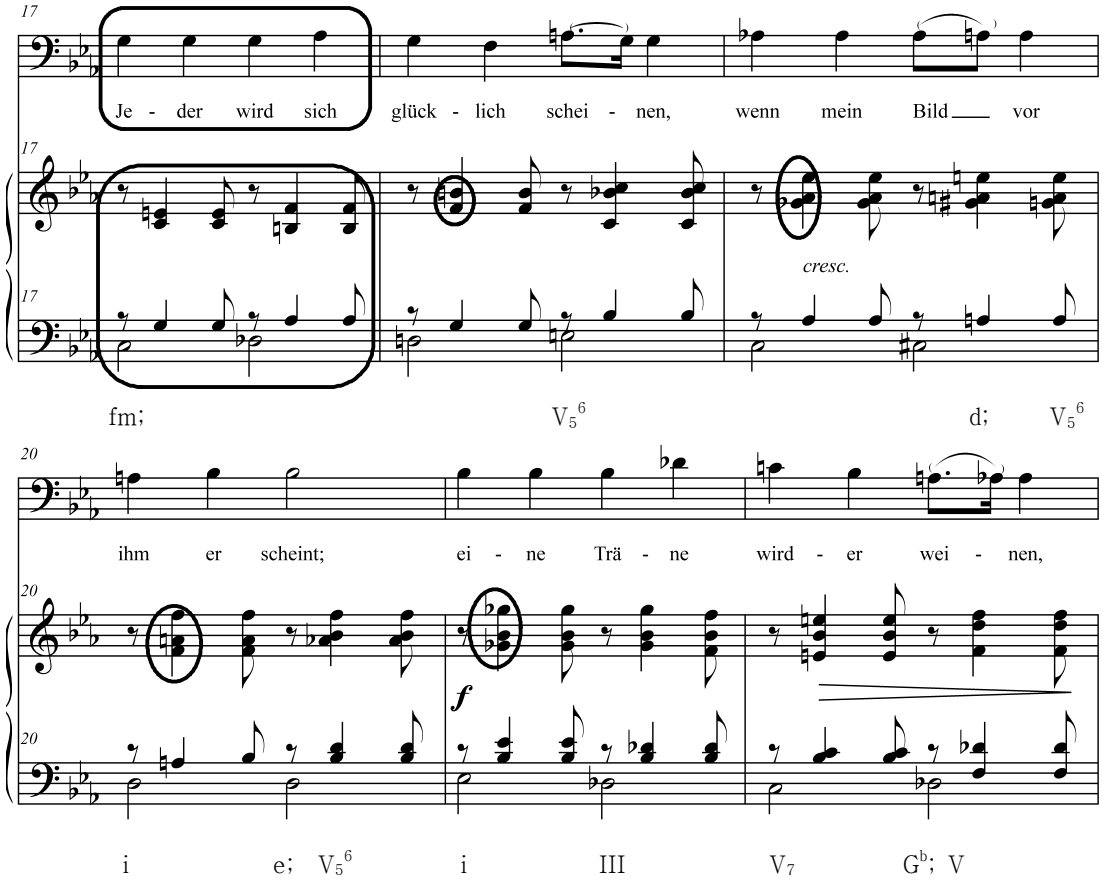
<악보34>

<악보34> 13-16 마디



B 부분에서는 f단조이고 성악 선율은 단순한 형태로 진행되며 반주부와 서로 엇박으로 연주되어 마음을 조여 오는 듯한 불안감을 더해 준다. 반음계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음역이 확대되면서 여러 번 전조가 나타나는 데 21마디의 'Träne(눈물)'을 향해 감정이 고조되면서 하프너의 슬픈 마음과 고통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악보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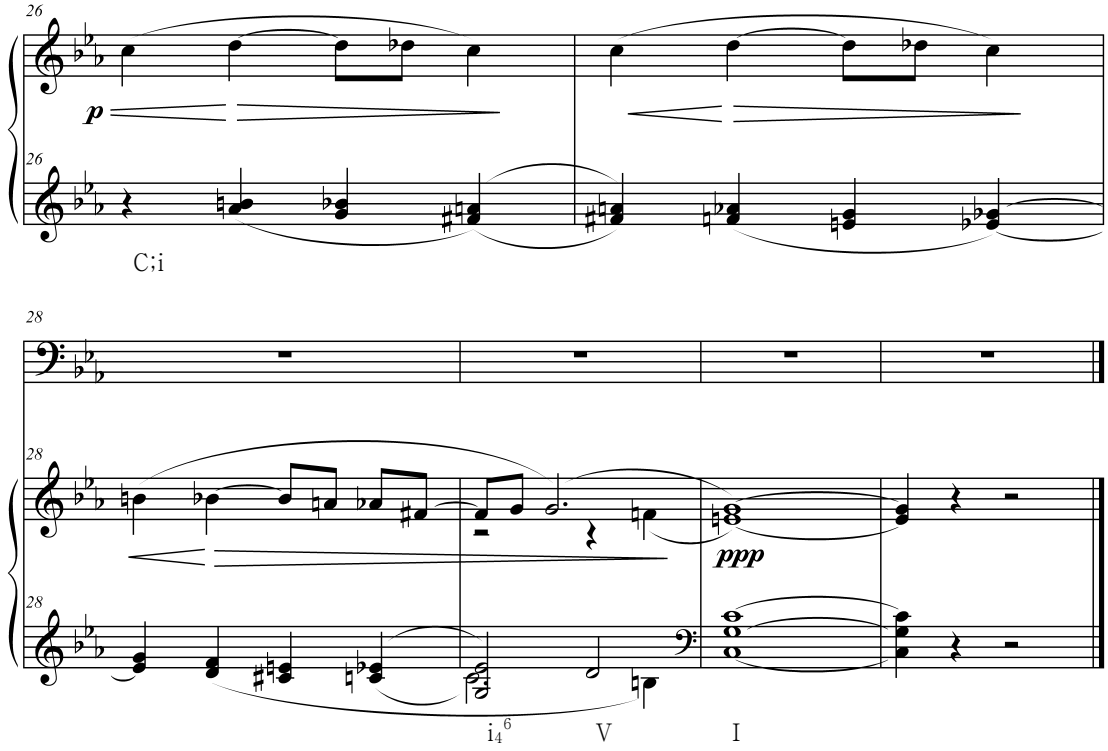
<악보35> 17-22 마디



볼프는 조성에 맞게 짜여진 작곡 기법이 아니라 반음계 진행, 감3화음, 변화화음 등 잦은 화성의 변화로 조성이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심리를 묘사해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후주 부분에도 반복되며, 종지부는 picardi 종지 형태로 끝난다.<악보36>

<악보36> 26-31 마디



III. 결 론

독일 낭만주의 대문호 괴테는 독일 문학을 꽃피웠으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괴테의 작품을 음악의 소재로 사용하여 자신의 음악과 결합시켰으며 괴테의 시는 독일 가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괴테의 소설 중 "Wilhelm Meisters"에 나오는 "하프 타는 노인의 시(Harfenspieler)"는 비극적인 운명의 가혹함과, 고뇌에 찬 슬픈 마음으로 방황하며 탄식하는 하프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인간 내면의 심리변화와 깨달음, 자유스런 감정을 표출하려는 낭만주의 사상에 부합되어 Schubert, Schumann, Wolf 등 "Harfenspieler"를 작곡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들 중 슈베르트와 볼프의 곡을 비교, 분석하였다.

슈베르트는 피아노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하프너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하프를 뜯는 듯한 아르페지오의 음형과 셋잇단음표를 사용함으로써 하프너의 흐느낌,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며, 불안한 마음을 고조시키기 위해 아르페지오 음형을 풍부한 화성의 잦은 변화로 표현 하였으며, 꾸밈음을 사용하여 시에서 요구하는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를 반복함으로써 나타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선율과 자유로운 전조와 반음계 진행으로 인하여 풍부한 화성적 색채를 엿볼 수 있었다.

하프너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상황을 'Pein'(고통), 'Qual'(괴로움), 'Einsamkeit'(고독) 등 강조 하고자 하는 가사에는 감7화음, N6th(Neoapolitan 6th chord)등을 사용하여 하프너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슈베르트의 하프 타는 노인의 시는 대부분 서정적이며 음악으로 시를 압도하기 보다는 시의 뜻을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하였고, 시와 음악의 조화를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반면 볼프는 문학적 감각과 어휘의 뉘앙스를 음악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탁월하였으며, 시의 내용이 음악에 극적으로 표현되어 지는 것을 추구하였다. 또 시행의 반복이 없이 괴테의 시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곡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첫머리의 모티브를 짜임새있게 발전 시켜 나갔다.

성악 성부에 낭창법을 도입시켜 시의 발음, 억양, 운율에 따라 음악의 악센트나 프레이즈를 일치시켜 당김음, 반복되는 리듬을 사용하여 하프너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반주부와 성악 성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정확하지 않은 조성은 하프너의 불안한 심리상태의 표현 효과를 위해 반음계 진행과 비화성음을 사용하였으며, 종지에서 완전 종지로 끝나지 않고 반종지로 끝나는 화성도 볼 수 있다. 하프를 뜯는 듯한 아르페지오 음형은 하프너의 침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옥타브의 코드 화성진행은 하프너의 복잡한 감정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볼프는 가사의 의미 표현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모티브가 곡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며, 화성과 리듬유형, 정확하지 않은 조성, 시의 효과를 위한 불협화음 등 다른 작곡가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노래나 반주부에까지 세심하게 악상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폭 넓은 셈여림의 변화도 볼 수 있다. "Harfenspieler"는 볼프의 작품들 중에서도 불협화음을 많이 쓴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시대적 성향과 작곡가들의 특징을 알 수 있었으며 슈베르트, 볼프의 작품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하프 타는 노인의 시(Harfenspieler)의 내용 및 두 작곡가의 음악적 특징과 작곡기법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작곡가의 삶의 고통과 음악적 스타일이 Goethe가 만들어낸 인물 Harfenspieler를 통하여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곡의 연주에 있어서 Harfenspieler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사의 의미는 물론 작곡가의 처한 상황의 심리 변화를 알아야 하며 같은 시지만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곡의 변화가 많으므로 잘 파악하고 연주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김미애. 1998. **독일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노태한. 2003. **독일문학사.** 서울: 한국문화사

문경수. 1998. **성악문헌(독일가곡 편).** 서울: 솔렘 기획

백병동. 1995. **화성학**. 서울: 수문당

안진태. 1995. **괴테 문학의 여성.** 서울: 열린책들

안진태. 2003. **독일담시론.** 서울: 열린책들

이경숙. 2003. **예술 가곡의 이해.** 서울: 선우미디어

이상기. 1999. **괴테 불멸의 사랑.** 서울: 푸른 숲

홍세원. 2001.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 국외 번역서적

Goethe, Johann W. 1999. ***Wilhelm Meisters Lehrjahre*,** 안삼환 역. 서울: 민음사

Grout, Donald J. 1991, **서양음악사(하).**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Kimball, Carol. 2004. ***Song***, 채은희 역. 서울: 형설

Lorraine Gorell. 1998.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Lied*(19세기 독일가곡)**,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3. 사전류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2001. ***Dictionary of Music***. 서울: 음악세계

양일용 편저. 2004. **음악용어대사전**, 서울: 태림출판사

김원구, 서우석 편역. 1998. ***Larousse de la musique***, 서울: 탐구당

Sadie, Stanley ed. 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16.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Sadie, Stanley ed. 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0.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4. 학위논문

나유창. **GOETHE의 작품 <Wilhelm Meister> 중의 시 - Gesänge des Harfners I. II. III -을 Text로 한 F. Schubert, R. Schumann, H. Wolf의 가곡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4

정복주. **괴테의 "하프타는 노인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연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1

Abstract

The analysis of the comparison between Schubert and Wolf's composition on Goethe's "Wilhelm Meisters Lehrjahre"

Son, Jung A
Departmen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of Music
Sungshin Women's University

Goethe(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played the central role in German literature and music during the classical and romantic period; and his literary work became the main source of creation for many musicians.

Goethe's work takes a big part in various genre of music. Especially, many musicians composed Lied using his lyric poetries which deal with the emotional and enlightment of self consciousness and it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German Lied. Lied composition that is in relation to Goethe's poetries changed the German Lied period and brought it to the climax at the time.

The Harfenspieler and Mignon in Goethe's novel "Wilhelm Meisters Lehrjahre" were particularly famous. Schubert and Wolf composed for Harfensipeler, which was already composed by many musicians, since they were fascinated by Goethe's poetry as well as others.

Schubert created Lied by developing of piano and German lyrical poetry literature at the beginning of 19th century. On the other hand, Wolf, inherited the spirit of Romantic period, developed Lied to higher

level and demonstrated his unique beauty of completion. In 'Wilhelm Meisters Lehrjahre' which Schubert and Wolf composed, the emotional severity of tragic destiny, anguish and unstable mentality of harfner is very well described but in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styles in composition.

This thesis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two different composers through the Lied "Harfenspieler" and researches on different ways of description of each composer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which makes a perfect harmony in both music and poetry. Also, this thesis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specific accompaniment skill by examining the piano accompanimen.